금주일언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다. 왜냐하면 이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키기 때문이다.

대품반야경

동대신문

제1336호 2002년 (불기 2546년) 3월 4일 월요일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 http://dgupress.dongguk.ac.kr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260-3491~2 FAX(02)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4)770-2057

새터사고 당시 '차량 이면계약' 공개

책임자 학생회 활동 중지 … 총학 변화 촉구여론 확산

지난 2000년 발생한 '새터사고' 당시 총학생회의 차량 이면계약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생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차량이면계약은 지난달 19일 2000년 총·부총학생회장과 사무국장, 새터 부상자 모임 대표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사실로 확인돼, 지난 2년 동안 제기된 의혹의 진상이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새터사고 부상학생 모임' 송영호(북한4) 대표는 "이면계약을 은폐해 온 32대 총학생회에 배신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 34대 총학생회에 △책임·은폐자들의 현직 학생회활동 중지 △정기적인 학생회 재정활동 내역서 공개 △총학 내 새터사고 전담 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는 부상자 모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이며, 총대의원회(의장=윤재욱·역교4)와 함께 이승복(반도체4, 2000년 총학생회장)씨 등 이면계약사실을 알고 있던 현 총학생회 집행부 5명과 총대의원회 집행부 2명의 임명을 취소할 방침이다.

총학생회는 △학자투위원장 △정책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임명취소돼 학생회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주진완 총학생회장은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무너진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이면계약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승복씨는 "이면계약 문제에 대해 학생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 공개될 경우의 파장을 고려해 조직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차량 이면계약사실이 공개된 후에도 총학생회가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해결모습을 보이지 않자 학생회 운영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터 부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2000년 새터사고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학생회 내에서 관행적·비민주적으로 답습해왔던 행태의 종착역"이라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생회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에는 새터사고 사망·부상자 소속 동아리, K교수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 총학과 연대사업을 벌였던 사회학과 학생회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학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에는 총학생회 재정 등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차량 이면계약 공개로 비롯된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고조된 만큼, 학생회는 앞으로 운영체계에 대한 변화모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오늘(4일) 2002학년도 입학식

신입생 3천91명 오전 11시 만해광장에서

2002학년도 서울캠 신입생 입학식이 오늘 오전 11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입학식은 오녹원 이사장, 송석구(철학)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신입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 △총장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장학증서 수여 △교무위원과 부속기관장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신입생 선서는 서울캠퍼스 수석 합격자 염상선(연극영상1)군이 대표로 하며 염군은 4년동안 학비가 전액 면제된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신입생 등록 결과 총 3천91명이 등록해 99.4%의 등록율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 23일부터 5일간 1, 2진으로 나누어 진행된 '새내기 새로 배움터'는 총 1635명의 신입생이 참가한 가운데 끝났다.

'준비 땅!'이라는 모토로 진행된 이번 새터는 △중앙동아리 공연 △단과대별 시간 △개그맨 정성환의 청년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한지호(경영4) 사무국장은 "새내기들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과대와 불교대는 자체적으로 새터를 진행했다.

힙합맨이야 … 지난 23일 진행된 새터 중앙공연에서 힙합댄스 동아리 'AJAX'가 힘찬 무대공연을 새내기들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가족장학 오늘부터 접수
신청학생 입학금 면제

가족장학 신청이 오늘부터 15일까지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에서 실시된다.

가족장학은 직계 형제·자매가 학부에 재학중인 2002학년도 신입생에게 지급되며, 내역은 입학금 면제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입생은 주민등록 등본과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를 학생복지실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학생복지실은 지난 26일 223명의 근로장학생을 선발했다.

박영석 동문 '새로운 도전'

7대륙 최고봉·3극점 정복 나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박영석(체교91졸)동문이 7대륙 최고봉과 3극점 정복에 나선다.

박영석 동문은 7대륙 최고봉과 3극점 가운데 이미 등정한 아시아 '에베레스트' 아프리카 '아콩카구아', 남아메리카 '코시어스코'를 제외한 6개의 고지 중 △4월에 오세아니아 최고봉 '칼스텐츠' △7월에 유럽 최고봉 '엘브르즈' △11월에 남극 최고봉 '빈슨 매시프'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대외협력처의 한 관계자는 "북극점 등정계획도 추진중이나 필요한 기금의 규모가 큰 관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 사 사 령

임기만료

▲편집장 = 김은선(이과대 통계4)
▲편집부장 겸 사진2부장 = 박현호(인문대 국문4)
▲대학1부장 = 김현중(공과대 전자4)
▲대학2부장 = 최창호(자연대 수교4)
▲사회부장 겸 사진1부장 = 김윤미(사과대 북한4)
▲문화1부장 = 표은영(사과대 북한4)
▲문화2부장 = 김지혜(관광대 호텔경영4)
▲여론부장 = 이소라(관광대 호텔경영4)
▲생활부장 = 정미혜(인문대 국문4)

신임부장

▲편집장 = 손상민(사과대 사회3)
▲편집부장 = 형진우(인문대 국문3)
▲대학부장 = 김도영(사과대 사회3)
▲사회부장 = 우정현(사과대 정외3)
▲학술부장 겸 생활부장 = 김현정(사과대 신방3)
▲기획부장 = 김혜진(문과대 영문3)
▲문화부장 = 이수경(문과대 국문3)
▲문화부장 = 이성희(문과대 문창3)
▲여론부장 겸 사진부장 = 엄태규(사과대 사회3)

- 이상 3월 4일자

신입생 도서관이용 교육 실시

오는 6월까지 재학생도 신청가능

중앙도서관이 신입생을 위한 '도서관 이용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술정보 검색법 △도서관 자료 이용법 △외부 도서관 자료 이용법으로 구성된다.

참가일은 선택 가능하며, 접수는 △도서관 1층 멀티미디어실 △3층 참고열람실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gu.ac.kr)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2002학년도 신입생은 학생증 발급 전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통해 도서대출이 가능하며, 3월 중순까지 도서관 출입 학생 인증시스템은 운영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주 동안 교육을 실시했으나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M.T. 정보 신설
취업가이드 업데이트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서 M.T.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정보관리실(실장=이종옥·정보관리학)은 대학생활란에 '모꼬지 길라잡이'를 신설해 △서울북부 △서해안 △중앙선 △경춘선지역의 추천할 만한 M.T. 장소와 교통, 관광코스 등의 정보를 게시했다.

한편, 대학생활란의 취업가이드는 올해 취업동향에 맞춘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으며 △취업정보 수집 △자격증 및 시험 △서류작성 및 면접 △취업전략 및 실전정보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MINT, 무선랜 부품 개발 성공

60GHz 밀리미터파집적회로 국산화

밀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터(소장=이진구·전자공학, 이하 MINT)가 초고속 무선랜서비스에 적합한 밀리미터파 대역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MINT는 60GHz대역 밀리미터파 집적회로 증폭기와 주파수 혼합기 등을 개발하고 이 장치들을 하나의 집적회로를 제작해 2Mbps 속도의 동영상을 전송했다.

밀리미터파대역은 30~300GHz 주파수 대역이며 특히 60GHz대역은 고속통신이 가능하지만 도달거리가 짧은 편이어서 무선랜에 적합하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밀리미터파 대역용 부품개발이 미비해 거의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와 관련해 MINT의 한 관계자는 "이번 60GHz 대역 집적회로 개발은 수입 대체효과 뿐 아니라 2005년에는 20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밀리미터파시스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수

3.1절과 민족 자존

40대 초등학교 동창 모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한 친구가 이야기 한다.

"10년 이상 3.1절 주제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 그림이 한결같애." 옆에서 듣고 있던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박수를 치며 맞장구 친다. "어 나도 그런 것 느꼈는데."

이야기가 몇 순배 돌아가고 초등학생에서 팔순까지 3.1절을 그리라면 그 모양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3.1운동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가 진전되자 불과 10여명의 의견도 제각기… 그러나 결론은 분명했다. 우리민족은 하나고 일제의 압제를 벗어나려는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주고 자존이라고.

3.1절 83주년이 되는 2002년 3월1일. 선열들의 생각이 얼마나 현실에 배어 있는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 83년 전 선열들의 그때 그 정신,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일까? 해마다 3월이 오면 우리는 일본을 이야기한다. 반성의 기미는 없고 역사왜곡까지 한다고… 한편에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일본과 파트너쉽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말들은 옳다. 그러나 그것은 3.1정신의 근본이 아닌 방편에 대한 논란이다. 근본은 지금 오히려 숨을 거두려 하고 있다. 83년 전, 당시 일본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다른 나라가 와 있고 그때의 하나됨은 지금 사분오열 돼 있다. 민족의 문제가 외세에 의해 전도(顚倒)돼 한편에선 그것이 옳다고 집회를 한다.

어제 국회에서 친일파 명단이 공개됐다. 어쩌면 후일에 친미파 명단이 공개될 지도 모르겠다. 부처님께서는 '법원주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 생각이라도 일으켜 행하면 진겁(塵劫)의 상서로운 꽃을 느끼고 반시각이라도 정성껏 실천하면 이에 대천(大千)의 감로(甘露)를 얻나니, 대개 이것이 대승(大乘)의 뿌리와 터요, 종지(種智)의 나루와 거리인 것이다."

83년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이 뿌린 자주와 자존의 씨앗을 발아시키기 위해 한 생각을 일으킵시다.

남 선
불교방송 보도국 사회문화부장

지면안내

☞ 6~7면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모르는 사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감시. 이미 감시와 통제에 무뎌져 있는 우리 사회를 조명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 4면 금강산 취재기

☞ 11면 다시 보는 동화

동대신문 기획광고

또 다시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2002학년도 개강호를 시작으로 새롭게 단장한 동대신문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나, 경주 독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이고자 1면 종합보도면의 서울·경주 분리제작을 실시합니다.
하나, 편집이 확~ 바뀌었습니다.
종합보도면의 보리수·지면안내 위치 변경, 해설면의 사설 통합에 따른 편집상의 변화 등으로 대학신문만의 참신함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 그밖에도 각 면에 따른 새로운 칼럼 신설, 8면일 때 문화테마면의 칼라화 등으로 독자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대신문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대신문을 향한 독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대신문사

총학생회 내 성추행사건 논란

2년만에 공개 … 공론화 통한 해결과정 정착 필요

지난 99년과 2000년 발생한 총학생회 내 성추행 사건이 최근 공개돼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는 지난달 4건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요구대로 '가해자의 실명 사과문과 성폭력 사건 경위'를 대자보와 학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총학생회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인지돼 왔던 사건을 발생한 지 2년여만에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희창(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은 "당시 총학생회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건해결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이 공개된 만큼 피해자의 요구 이행 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는 지난달 19일 성명서를 발표해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성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개된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반성폭력 학칙 제3장 제12조 처벌 규정을 적용해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계획서 공개와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은 총학생회 간부를 '2차 가해자'로 보고 실명 사과문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총운위는 지난해 K교수의 복직 결정에 반발, 총여학생회와 사회학과 학생회가 구성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위원회'를 총학생회 상설기구로 두고 전담 집행부를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 내에서 2000년 새터사고 당시 차량이면계약 문제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성추행 사건 해결에는 소홀한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허고은(중문3) 총여학생회장은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성추행 사실을 학생회 내부에서 묵과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던 만큼, 앞으로 학내 성폭력 문제는 공론화를 통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한 해결 과정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고양이 가족 … 동국관 나체밭에 고양이들이 가정을 꾸렸다. 때아닌 진풍경에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만 급속한 번식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오늘(4일)부터 후보자 등록

제18대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가 오는 14일부터 이틀동안 실시된다.

입후보 자격은 △재학중인 자로서 남은 학기가 2학기 이상이며 △대학원생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며,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추천서를 포함한 등록신청서를 대학원 총학생회에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늘(4일)부터 8일까지이며, 등록한 후보는 11일부터 사흘 간 선거 운동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등록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된 바 있다.

총대, 새터부정기 감사 실시

오는 17일경 대자보로 결과 공개

총대의원회(의장=윤재욱·역교4)가 새터 부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사업 △예산 △조직 부문으로 나눠 실시되며, 각 단과대와 중앙기구는 △사업계획서 △영수증 △금전출납부 △발송공문 △각종 계약서 등을 오늘(4일)까지 총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면담감사는 오는 9일부터 각 단위별로 실시된다. 감사일정은 △9일=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대 생자대 공대 예술대 △10일=사과대 정산대 사범대 야총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11일=총대의원회 순이다.

한편 감사 결과는 오는 17일경 대자보를 통해 공개되며, 각 단위별로 감사 결과서 수령 후 2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재욱 의장은 "단위별로 새터사업에서 사용한 비용 내역을 철저히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학기 수강 신청 정정
오는 6일부터 3일간

200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정정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정정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정정원을 작성해 PC로 정정한 후, 학업지도교수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교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정원은 각 대학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에서 교부하며, 최종 변경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터 특집 - 우리는 02학번이다!

"두살 어린 동기지만 나이는 중요치 않아"

김 준 호 (사과대1)

새터에서 만난 김준호(사과대1)군은 2년 동안 수험생 생활을 거쳐 대학에 입학한 '삼수생'이다.

새터에 참가할 때 망설임 보다는 기대가 컸다는 김군이지만 여느 삼수생이 그렇듯 동생 또래인 동기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자신보다 어린 선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그는 "동기들이 형, 오빠라 부르고 말은 놓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또한 새터기간 동안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며 '동기'라는 이름 아래서 나이는 중요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01학번 선배들에 대한 호칭은 여전히 어색하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배라고 부르면 되나요?"라고 물으며 "무엇보다 '저 사람이 날 불편해 하지 않을까'하는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할 것 같아요"라고 앞으로의 각오도 밝혔다.

김군은 '늦깎이 대학생'인 만큼 대학생활에 대한 계획도 남다르다. 그는 대학생활의 낭만을 꿈꾸는 다른 새내기들과 달리 학업에 대한 욕심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공부에 전념할 김군이지만 새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도 소중히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다리는 불편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망설였죠. 고등학생이었다면 참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왼쪽다리에 선천적 장애를 지녀 거동이 다소 불편한 새내기 김지희(서양화1)양. 2박 3일의 여정에 따라나서기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대학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었다.

"일정이 힘들긴 하지만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은 변함 없어요. 대학은 이제까지 경험한 곳과는 다른 열려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죠."

스스로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 어려운 결심을 했던 김양이 새터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요. 제가 다리가 불편해 대오에서 많이 처지곤 했는데 그 때마다 선배님들이 속도를 맞춰 같이 걸어줬어요. 그때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걸 느꼈죠. 대학생활, 예감이 좋아요."

학내 장애인인권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새터기간 동안 서명운동과 교양을 진행한 '장애학우와 함께하는 새터 구성 준비위원회'에 대해 김양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좋다"고 말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학생활을 열어가는 그의 미소가 동악곳곳에서 계속되길 바란다.

김 지 희 (서양화1)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외국대학과 달리 학생이 만들어 가는 '새터'

양 석 원 (경영대1)

"속어나 농담을 이해하기 힘들어 사람 사귀는 걸 걱정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캐나다로 건너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양석원(경영대1)군은 영어능력 특기자로 입학했다는 사실에 다른 학생들이 거리감을 갖게 될까 걱정했다. 그러나 새터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서툰 우리말을 교정 받으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 대학 홍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양군은 새터가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신입생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외국대학의 오리엔테이션과의 가장 큰 차이로 꼽았다.

또한 "캐나다 대학에 비해 신입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2박 3일 동안 함께 생활하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교수가 학교와 동아리를 소개하는데 그쳐 학생들의 참여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첫날 중앙공연을 본 양군은 "외국 대학에 비해 많은 수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고등학교 때까지 활동했던 음악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1학년을 마치고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는 그에게 '준비된 신입생'의 모습이 엿보였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회전무대

절반의 성공

○…학내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공론화 되고 있는 요즘, 이번 새터에서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띄었다는데.

총여학생회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 남·여학생 숙소를 별도 배정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이는 첫날 잘 지켜졌지만 술자리가 벌어진 둘째 날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으니.

이에 한 학생 한마디, "성폭력 예방,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미약했다(?!)"

방황의 끝

○…새터 1진 중앙공연이 진행된 공연장 주변은 방황(?)하는 학생들로 어수선했다는데.

알아보니 중앙공연이 열리는 동안 신입생들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돌아다녀 공연장 안팎이 혼란을 빚었다고.

공연장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신입생들, 대학의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공연장 밖의 자유로운 영혼들 … 디아더스."

24시간의 충전

○…혜화관 2층 캠퍼스 샵에 설치된 핸드폰 급속 충전기 램프가 자주 깜빡거려 고장으로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이는 충전시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핸드폰을 알리는 경고 표시라고.

충전시간을 지키지 않는 몇몇 학생들로 급히 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은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충전 다 된 핸드폰, 빼가라~"

갈라진 추억

○…얼마전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앨범을 보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이유인즉 앨범 제작상의 문제로 제본에 이상이 생겨 졸업앨범 대부분이 갈라지거나 뜯어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졸준위에서 배부 전 앨범을 확인했다면 졸업생들이 각각 교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었을 터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졸업앨범, 한장 한장 추억대신 짜증이 배어 있습니다(?!)"

2002학년도 1학기 방송편성표 〈AUDIO〉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8:00~8:25	동악의 새아침				
8:25~8:30	우리말 알고 씁시다.				
12:10~12:15	캠퍼스 뉴스				
12:15~12:20	DUBS 캠페인				
12:20~12:30	유서경의 시사터치 제작,진행:유서경 기술:조정근 진행보조:이윤숙	동악 포커스 제작,진행:백윤주 기술:정범구 진행보조:정혜영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제작:박진희 녹음:이원재 진행:정문주, 김태범 기술보조:조정근	목멱 칼럼 제작,진행:오혜경 기술:이원재	DUBS 리퀘스트 제작,진행:변지철 기술:이원재 진행보조:이정연
12:30~12:45				백상 초대석 제작,진행:이정연 녹음기술:정범구 기술보조:이원재	
12:45~12:50	헤드라인 뉴스				
4:50~4:55	헤드라인 뉴스				
4:55~5:00	DUBS 캠페인				
5:00~5:05	English Go! Go! 제작:이주현, 녹음기술:조정근, 진행:김태범				
5:05~5:10	탈무드 이야기				동악의 현장 제작,진행:보도부 진행보조:김수정 기술:조정근
~5:20	무대 속으로 제작:이윤숙 진행:정문주 기술:이원재	가자! 월드컵으로 제작:이미진 녹음기술:조정근 진행:변지철 진행보조:박정환	씨네 하우스 제작 : 오지영 진행 : 장재희, 장선주 기술 : 정범구	우리 동네 책방 제작:이미진 진행:장재희, 정문주 기술:이원재	
~5:25		음악이 흐르는 창가 제작:박정환 기술:조정근 진행:김태범, 장재희			비람이 머무는 곳 제작:김수정 진행:이인화 기술:조정근
~5:40				출발! 세계 속으로 제작:정혜영 진행:정문주 기술:이원재	

DUBS

차량 10부제 시행안내

교내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차량 10부제 운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전 교직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시 행 일 : 2002년 3월 5일(화)부터

2. 시행방법 : 차량 끝자리 번호 해당날짜에 운행금지

3. 주 5일(월~금) 실시
가. 매달 31일은 전차량 10부제 제외
나. 학교 공용차량 외 전차량 적용
(업체마크가 부착된 A/S 및 공사차량 제외)

※ 중문(혜화문) 개방(차량통행)시간
가. 학기중: 16:30~22:30
나. 공휴일/토·일요일은 차량통행 불가

※ 유의사항 : 차량 주차시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제동장치를 필히 작동하여 주시기 바람.
(주차구획선 주변지대의 이중주차 및 기어 중립상태 주차 금지)

사 무 처

2002학년도 1학기 방송편성표 〈VIDEO〉

시간 \ 요일	월	화	수
3:00~3:05	DUBS캠페인 연출/촬영/편집:TV제작부 출연:아나운서부		
3:05~3:15	스페셜 데이트 연출/촬영/편집:김지희 나래이션:정문주	일본으로 가자 연출/촬영/편집:유용화 나래이션:장재희 음향기술:조정근	DUBS 뉴스센터 진행:조혜정기자 칼럼:오혜경기자 촬영:최은영 소스촬영:TV제작부, 보도부
3:15~3:25	동아리 따라잡기 연출/촬영/편집:김보람 나래이션:이인화 음향기술:이원재	풀어보는 재미가 있다 연출/촬영/편집:김영빈 나래이션:장선주	영화와 영화 사이 연출/촬영/편집:현승묵, 황준호 나래이션:김태범
3:25~3:30	이야기로 듣는 법구경 연출/촬영/편집:윤미진		

언어연구교육원 봄특강

		영어회화	Writing & Speaking	Screen English	Business English	CBT TOEFL	트루 잉글리쉬 토익	일본어
강의시간	오전	8:00-9:00 (월-목)	8:00-9:00 (월-목)		8:00-9:00 (월-목)	·	기본,중급,종합	·
	오후	4:30-5:30 (월-목)	4:30-6:00 (월,수,금)	4:30-5:30 (월-목)	·	6:00-7:30 (월-목)	기본,중급,종합	5:00-6:30 (월,수,금)
정원		13인	13인	20인	20인	30인	40인	20인
강의기간		1차 : 2002년 3월 13일(수) - 2002년 4월 19일(금) (5주) 2차 : 2002년 4월 29일(월) - 2002년 5월 31일(금) (5주)						
수강료		본교생 8만원 일반 9만원	본교생 10만원 일반 11만원	본교생 8만원 일반 9만원	본교생 8만원 일반 9만원	본교생 8만원 일반 9만원	기본,중급: 9만원 종합: 10만원	본교생 8만원 일반 9만원
접수기간		2002년 2월 27일 (수)부터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						
문의 및 접수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 (혜화관 1층) 전화:2260·3470/1 팩스:2260·3691 E-mail: today@dongguk.edu http://today.dongguk.ac.kr						

▶ 개강 : 3월 13일(수)
▶ 100% 출석 시 다음 특강 20% 할인
▶ 2과목 동시 수강시 1만원 할인
▶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혜택
▶ 전 수강생 웹 토익 무료 수강 - 언어연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개강 전 신청

언 어 연 구 교 육 원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사설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되어야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남북 공동모임'이 무산되었다. 통일부가 377명의 참가 신청자 중 46명에 '무더기' 방북 불허 조치를 취해 통일연대 소속 전원이 참가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북측이 행사직전 남북공동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이다.

이번 새해맞이 공동행사는 애당초 19, 2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 성명서 발표와 8·15통일대축전으로 빚어진 파문을 의식한 정부의 조처로 대보름날에 행사를 치르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하지만 방북 신청을 한 총 99명의 통일연대 신청자 중 3분의 1 이상인 40명이 불허 판정을 받았고 이는 통일연대 전원 행사 불참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통일부의 과도한 야당 '눈치보기'와 간섭이 올해 들어 처음 남북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설맞이 공동행사 무산이라는 악재를 낳은 셈이다. 특히 방북 불허를 받은 46명 중 한총련 소속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일부 내에서 "남북교류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대북 민간교류 승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자"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억지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다.

어디 그 뿐인가. 통일부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국민 정서, 정부의 통일정책 등에 반하는 언행 및 승인받은 방북 목적 이외의 정치적 논의나 주장, 합의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해 본질을 흐리기도 했다.

이번 행사의 무산을 통보한 북측이나, 남측이 부시 방한으로 행사를 미루어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를 우선한다는 인상을 준 점, 민간교류에서 지나친 정부 간섭 등 원인이 우리 쪽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앞으로 아리랑 축전, 월드컵, 6·15 공동선언 2주년 행사 등 여러 큰 행사들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6·15 공동선언 제 4조에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은 서로의 꼬투리를 잡기에 앞서 6·15 공동선언의 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더불어 민간 통일운동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대화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논란

달라진 '의사되는 길' 안전한가

의예과 입학, 학사 편입의 좁은 문을 갖고 있던 의사양성교육과정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대폭 개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대학원 도입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와 의학계 및 대학의 입장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16일 △복합학위(M.D.-Ph.D.) 과정 개설 등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도입 △과도한 대학입학 경쟁의 완화 △연구 중심 의사 양성 등을 위해 2003년도부터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09년까지 현재 의과대학 체제(2+4, 학사학위 수여)와 전문대학원 체제(학사+4, 석사학위 수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원 도입 대학은 2003년부터 의예과를 폐지하고 2005년부터 현 의예과 정원을 전문대학원 정원으로 전환해 모집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발표안에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의·치의학 교육입문시험(MEET·DEET)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지난달 15일, 건국대와 가천의대 등 총 7개 대학은 오는 2003년도부터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김교순 의과대학장은 "전문대학원제가 정착될 경우 학사과정에서 기본교양을 넓히며 기초학문을 폭넓게 공부할 수 있어 교양과 도덕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3년도부터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는 대학은 전국 43개 의과대학 중 7개 대학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지난 1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전문대학원 도입안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문대학원을 도입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4년 간 동일한 의학교육을 이수했으면서도 의과대학 수료자에게 학사학위를, 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의학교육기간이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남자의 경우 군복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사무국 업무당당 김영표씨는 "그동안 학사 편입을 한 학생들이 연구 중심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는 적었다"고 말하며 전문대학원 도입이 연구 중심 의사를 양성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교 역시 의학계의 의견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전문대학원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의과대 김영기 교학과장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방안을 채택할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내년이면 몇몇 대학은 의예과를 폐지하고 전문대학원 도입준비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전문대학원제 시행 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의학계 및 각 대학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도입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는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주요 변경내용

	기본원칙	지원자격	대학교육기간	학위명칭
현 행	학사과정	고졸 후	6년(2+4)	의학사
도입 후	대학원과정	학사학위취득자 MEET 의무화	7~8년(학사+4)	의무석사

용어설명

▶ **MEET** = 의학교육입문시험. 의학교육 및 국민의료 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일종의 적성 시험이다.

대학교육의 이수 연한, 학점 및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본인이 원할 경우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다.

※ DEET = 치의학교육입문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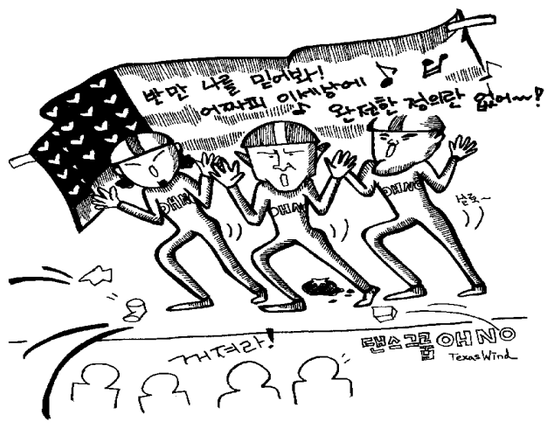
▶ **학문연구 복합학위과정(M.D.-Ph.D.)** = 의학교육 기본과정과 학술학위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전문 석사학위(M.D.)와 학술 박사학위(Ph.D.)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운영 체계.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 **2+4제도** = 현재 의과 대학체제로 다른 전공의 경우 학부에 해당하는 의예과 2년과 본격적인 의학교육을 받게 되는 의학과 4년으로 구성된다. 수료자는 의학사 학위를 받는다.

▶ **4+4제도** =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되는 방식으로 학사학위 수료기간 4년과 대학원에서 의학교육을 받는 기간 4년으로 구성된다. 수료자는 의무석사 학위를 받는다.

동국만평

임희정 texaswind@hanmail.net



논단

김민웅 재미언론인

높아진 반미여론과 한반도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퇴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세계전략에 대한 지구촌의 반발이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로 역설이다. 미국은 더욱 강력하게 세계를 제패하려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국제적 위상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정서의 급속한 확산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에서 김동성 선수에 오심판정을 내린 일이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고 있는 세계적 맥락 속에 발생한 사건의 하나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일부 운동권을 제외하고 '반미정서의 무풍지대'라고 여겨져 왔던 한국에서마저 자신의 제국주의적 패권체제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지난해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의 유럽순방은 격렬한 반미시위로 얼룩졌다. 그리고 이번 한국 방문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에서 부시 대통령은 환영대신 조소의 분위기를 절감하면서 귀국해야 했다. 오만하기 그지없던 부시는 그나마 다소 '고개 숙인 남자'로 돌아가야 했다.

이러한 세계적 반미 정서의 확산에 경악한 미국 정부는 거짓정보라도 가공해서 미국정책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조작해야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그동안 이러한 행위를 해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다급했으면 거짓을 정책으로 삼는 정부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겠는가?

미국 부시정권의 군사주의 노선은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징후가 짙어지면서 세계적 패권체제의 동요가 분명해져 가는 것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의 돌파구를 냉전시대의 전쟁국가 강화로 확보하겠다는 낡은 방식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클린턴 정부 시기, 자본의 직접 지배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이 내부적으로는 엔론 사태 같은 부실기업의 파산, 외부적으로는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등 모순을 드러내자 군사주의 노선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부시 정권의 등장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동력이 고갈되어 가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일방주의가 세계적 반발을 맞게 되면서 미국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9.11 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를 미국 앞에 줄 세우고, 이에 응하지 않는 나라는 적으로 간주하면서 극단적인 경우 '국가소멸'의 재앙을 경고했던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세계적 승세를 쥐고 있던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붕괴되어 가는 재편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그러한 재편기에 자신의 패권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강공에 직면해 있으며, 그동안 우리 내부에 길러진 대미 항쟁 의식이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 접근에 일정한 방어벽을 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간 어려운 고비를 넘겨온 '반제국주의 자주화 운동'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가 지난 방미 과정에서 미국의 환심을 사 잔뜩 부풀어 있다가, 부시 정권에 대한 반감이 깊어지면서 도리어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은 역사의 대세를 거스르는 정치지도자의 비운을 예감하게 해주고 있다. 미국에 종속적인 식민지 정치와 질서를 청산하는 일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며, 정치경제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의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올해 일련의 정치과정은 바로 이러한 전제조건의 실현을 위해 우리 민족의 역량이 정확히 집결되어 힘을 뿜어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인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 행 인 송석구
편집인겸주간 김호성
부 주 간 백승석
편 집 국 장 박상관
편 집 장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2002학년도 학사일정

년	월	일	학사내용	비고
2002	3	4(월)	개강	
		4(월)	2002학년도 입학식	총무팀
		4(월) ~ 6(수)	1학기 휴학 신청	각 교학과
		4(월) ~ 6(수)	1학기 특별시험 접수(1학년)	학사지원실
		6(수) ~ 8 (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학사지원실
		9(토)	1학기 특별시험(1학년)	각 교학과
		18(월) ~ 20(수)	조기졸업신청	각 교학과
		28(목) ~ 29(금)	수강과목 취소(W)	각 교학과
	4	7(일)	1학기의 1/3일	
		12(금)	4·19 등반대회	학생복지실
		25(목)	1학기의 1/2일	
	5	8(수)	개교 96주년 기념일	
		12(일)	1학기 2/3일	
		19(일)	부처님오신날	
		14(화) ~ 16(목)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사지원실
		27(월) ~ 31(목)	전공/ 복수전공 신청(2학년)	각 교학과
	6	3(월) ~ 16(일)	1학기 강의 평가	홈페이지
		10(월) ~ 12(수)	2학기 복학·재입학 신청(1차)	각 교학과
		17(월) ~ 21(금)	2학기 수강신청	각 교학과
		17(월) ~ 28(금)	1학기 성적 처리(입력, 공시 및 정정)	홈페이지/담당교수
		17(월) ~ 7. 11(목)	하계 계절학기	학사지원실
		17(월) ~ 8. 25(일)	하계방학	
	8	19(월) ~ 21(수)	2학기 복학·재입학 신청(2차)	각 교학과
		19(월) ~ 24(토)	2학기 등록	재무회계팀
		22(목)	200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무팀
		26(월)	개 강	
		26(월) ~ 28(수)	2학기 휴학 신청	각 교학과
		26(월) ~ 28(수)	2학기 특별시험 접수(1학년)	학사지원실
		28(수) ~ 30(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각 교학과
		31(토)	2학기 특별시험(1학년)	학사지원실
	9	17(화) ~ 19(목)	조기졸업신청	각 교학과
		26(목) ~ 27(금)	수강과목 취소(W)	각 교학과
		29(일)	2학기의 1/3일	
	10	17(목)	2학기의 1/2일	
	11	3(일)	2학기의 2/3일	
		5(화) ~ 7(목)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사지원실
		25(월) ~ 29(금)	전공/복수전공 신청(1학년)	각 교학과
		25(월) ~ 12. 8(일)	2학기 강의 평가	홈페이지
	12	9(월) ~ 11(수)	1학기 복학·재입학 신청(1차)	각 교학과
		9(월) ~ 13(금)	200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각 교학과
		9(월) ~ 20(금)	2학기 성적 처리(입력,공시 및 정정)	홈페이지/담당교수
		9(월)~2003. 1. 3(금)	동계 계절학기	학사지원실
		9(월)~2003.2.28(금)	동계방학	
2003	2	14(금)	200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무팀
		17(월) ~ 22(토)	1학기 등록	재무회계팀
		24(월) ~ 26(수)	1학기 복학, 재입학 신청(2차)	각 교학과

청우 동국상 제정 안내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제7~10대 회장이셨던 故 靑牛 崔載九선생(1952년 국어국문학과 졸업)의 동국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평소 최재구 선생을 흠모했던 동국가족들이 뜻을 모아 '청우 최재구선생추모사업회'를 결성하고 그 첫 사업으로 '靑牛東國賞'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12월28일 작고한 최재구 선생은 총동창회장 뿐만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불교신도회장, 국회 경제과학위원장을 지낸 4선 국회의원, 한국에 최초의 금메달을 안긴 몬트리올 올림픽선수단장 등으로 동국가족의 긍지를 드높이신 자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비록 최재구 선생은 떠났지만 우리 동국과 불교계,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뜨겁고 적극적으로 살다간 그 열정은 지금도 우리들 가슴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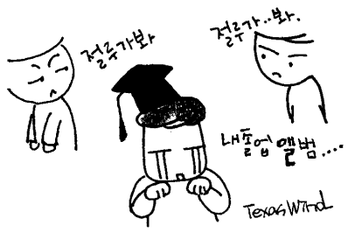
이에 故 청우 최재구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동국발전에 더욱 발심정진하는 우리 동국가족들의 사표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매년 '靑牛 東國賞'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동국가족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1. **시 상 명 칭** : 靑牛 東國賞
2. **후보자 추천** : 2002년 11월1일 ~ 11월30일
3. **추 천 방 법** :
   ① 총장, 총동창회장, 청우최재구선생추모사업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② 동국가족 10인이상의 서명 추천을 받은 자
4. **추 천 서 류** : ① 추천서(소정양식) 1부
   ② 이력서(사진 2매 첨부) 11부
   ③ 공적설명서(소정양식) 및 관련자료 1부
5. **수상자 선정**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함
6. **시 상 일 자** : 2002년 12월(일시 및 장소는 추후 발표)
7. **시 상 내 용** : 상패 및 부상
8. **문의 연락처** : 윤천영 016-896-3916
   송재운 (02)2260-3189

청우 최재구선생 추모사업회

동악로

오! 마이 앨범



"졸업앨범 찾으러 왔는데요"
"명단에 없는데…"

학과사무실로 앨범을 찾으러 간 졸업생이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없자 난처해한다.

"졸업준비위원회에서 명단을 받았으니까 거기로 가보세요."

매년 졸업앨범 구입자 명단에 몇몇 학생의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들은 지난해 4학년 2학기 등록 후 휴학했던 학생들이다.

현재 졸업앨범비는 재무회계팀에서 4학년 2학기 등록금에 일괄적으로 고지하기 때문에 앨범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기 중 졸준위에서 앨범비를 환불받아야 한다. 그 후, 졸준위는 환불받지 않은 신청자 명단과 앨범을 각 학과사무실로 보낸다.

그러나 학과사무실에 보내진 명단은 그 해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휴학했던 학생은 지난해 앨범비를 냈음에도 올해 구입자 명단에 누락돼 있다.

"작년 앨범비 납부 확인증을 재무회계팀에서 받아와야 앨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앨범을 받기 위해 졸준위를 찾은 졸업생들은 다시 재무회계팀으로 발길을 옮겨야 한다.

바쁜 졸업식날 학과사무실, 재무회계팀, 졸준위를 모두 거쳐야 앨범을 받게 되는 삼중고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서울산업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와 앨범비 고지서가 각각 발부 돼 희망자만 앨범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교는 졸업생들의 앨범 구입 여부에 상관없이 앨범비가 일괄적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졸업앨범은 4년 동안 대학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이지만 앨범 찾는 일을 짐으로 여기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부터는 졸업식날 졸업앨범을 찾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본사 기자 금강산 동행 취재기

금강산에서 만난 또 하나의 조국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항공대 등 서울지역 12개 대학 학생회장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박 3일간 금강산을 다녀왔다. 유뉴스와 (주)현대아산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22일 서울을 출발해 구룡연 · 삼일포 · 해금강을 관광하는 일정으로 치러졌으며, 간담회를 통해 과학생회나 동아리 등 대학생 단체의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에 본 지면에서 학생회장단의 금강산 탐방을 동행취재를 통해 담아냈다. 편집자

22일 06:00

이른 아침, 금강산으로 떠나기 위해 모인 학생들. 아직도 금강산에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학생들은 기대감과 함께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약 4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속초항에 도착한 학생회장단은 자신들을 금강산으로 데리고 갈 '설봉호'에 올랐다. 차츰 눈에서 남한 땅이 멀어져가면서 학생들은 금강산에 간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22일 16:00

"잠시 후 이 배는 북방 한계선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갑판 위의 사람들은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낼 북녘 땅으로 눈을 향했다. 희미하게 보이던 산들이 차츰 뚜렷해졌고 북한 군함이 하나 둘 눈에 들어왔을 때는 괭괭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그러나 연신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화답하며 다가오는 고깃배들의 모습에서 긴장감은 어느새 반가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북녘 땅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흥겹게 들려오는 '반갑습니다' 노래 소리와 '동포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내용의 선전 문구, 인민복을 입은 북한군의 모습에서 이북의 정취를 엿볼 수 있었다.

23일 08:00

'천하 제일 명산 금강산'이라고 큼직하게 쓰여진 표지판 뒤로 학생회장단은 말로만 듣던 금강산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도로 옆으로 간간이 보이는 북한의 모습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 "한민족끼리 낯설지 않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학생들의 말에서 남과 북이 하나임이 다시금 느껴졌다.

금강산 입구에 오르자 안내원들이 미리 나와 학생회장단을 맞이했다. 첫 만남의 서먹함도 잠시, "뭔가 통하는 거 같지 않습네까?"라며 넌지시 말을 건네는 금강산 안내원. 손을 잡고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금새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금강산의 절경과 안내원들의 동포애를 느끼며 오르는 산길은 시종일관 훈훈하기만 했다.

2시간 동안 땀을 흘려가며 상팔담 정상에 오르자 금강산의 웅장함이 한 눈에 들어왔다. "통일의 꽃을 피워요~ 삼천리 방방 곳곳에~" 학생회장단은 통일의 염원을 담아 노래를 부르며 "돌아가면 학우들과 함께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다.

23일 14:00

금강산 산행을 마치고는 유명한 '평양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모두들 TV에서만 보았던 교예를 관람하게 되자 넋을 잃고 빠져들었다. 배우의 실수에 관람객들 모두 한 목소리로 안타까워하고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학생들은 "직접 보니까 왜 예술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며 사진으로 남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24일 08:00

어느덧 일정의 마지막 날, 일행을 태운 버스는 북한 마을을 통과하며 해금강으로 향했다. 도로 옆으로 보이는 북측 어린이들과 마을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웠지만 그저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한 쪽으로 끊어진 철길이 보였다. "여러분이 4시간에 걸려 온 것을 저 철길로는 3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는 안내원의 말. 학생들은 금강산 육로관광의 필요성을 느끼며 새삼 분단 현실을 실감했다.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모두들 노래를 부르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배에 올랐다.

이번 여행을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통일 기반 사업으로 평가하는 이재희(항공대 총학생회장) 대표는 "학생들에게 금강산 관광에 대해 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내비쳤다.

결코 짧지 않았던 2박 3일의 금강산 관광,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이들의 마음은 다시금 북녘 땅을 밟게 될 그 날을 향하고 있었다.

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공연을 끝낸 평양 모란봉 교예단이 관객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파업의 굴레를 아십니까

지난 달 27일 철도노조의 협상이 타결 되면서 88년, 94년에 이은 철도노조의 세번째 파업이 마무리 됐다.

그러나 이번 파업 역시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 논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한국사회 특유의 '파업 악순환' 과정을 이번 철도노조파업을 예로 들어 분석해 본다.

☞ 문제의 근원은 '구조조정 VS 고용안정'

철도노조파업의 경우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철도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부딪히면서 민영화문제가 핵심쟁점이 되었다.

대화없는 일방적 운영으로 갈등 심화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면 권력을 가진 사용자측이 일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철도민영화의 경우 정부는 어떤 집단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노조가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공청회 및 TV토론에 대한 공식적 대답조차 하지 않는 등 절차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해 대우자동차가 노조 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노동자 1천750명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 또한 비민주적 운영의 극단적 예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지속적인 파업 비판보도

이번 철도노조 파업기간동안 일간지 1면 사진은 대부분 발을 동동 구르며 지하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표정이나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 풍경이었다. 또한 '수출 차질 400억 손실' 등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을 제시한 기사나 '과격 노동운동 이제 달라져야'와 같은 '때리기'식 사설이 실리기도 했다.
한편 가뭄과 민주노총 및 항공사노조 파업이 겹쳤던 지난해에는 자연재해인 가뭄을 파업과 연관지어 "하필 이때…" 등 감정적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해 파업노조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가는 역할을 한다.

근본 해결 없는 마무리 … 악순환 지속

이처럼 파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노조는 핵심사안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채 사태를 봉합하게 된다. 지난 94년 철도 노조 파업 협상 당시 24시간 맞교대 근무폐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전혀 성과를 보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이번 협상에 와서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올해는 민영화와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악순환의 불씨를 남겼다.

파업

한 시대 문화와 함께 하는 '사전'

언어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의문 해결사 · 문화적 성과 기록서

사람은 말과 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한다.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말과 글의 규범을 지켜야 한다. 저마다 자기가 배운 사투리로 말하고 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이유로 언어 정책 담당 기관에서는 표준어를 세우고 말과 글의 규범을 확립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개인이 사회적인 합의를 지키면서 생활하기는 쉽지 않다. 규범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언어 생활을 하면서 규범이 궁금할 때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전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찌개'와 '찌게'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하는가? 사전에서는 친절하게 '찌게'도 싣고 '찌개'의 잘못이라고 정보를 주거나 '찌개'만 실음으로써 '찌게'가 잘못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인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기/오게 마련이다"라고 할 때 '오기'와 '오게'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하는가? 사전을 찾아보면 '오기/오게' 둘 다 써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의 뜻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등록금은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하십시오"라는 글을 보고 12월 31일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되는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전'이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해서 그 전을 뜻한다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야 한다.

이처럼 사전은 언어 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어 생활의 길잡이로서 그 역할이 중대한 것이다.

사전은 한 시대가 이룩한 문화적 성과를 기록하는 일을 맡기도 한다. 문화적 성과를 이룩할 때 우리는 그 성과를 나타내는 적합한 말도 함께 만들게 된다. 때로는 이미 있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기도 한다. 이런 말들을 수록하고 그 뜻을 풀이함으로써 사전은 곧 문화적 성과를 기록하는 것이다.

사전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사전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곧 사전 편찬자의 역할이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다하기는 쉽지 않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그것도 정확한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한글 표기, 정확한 발음, 한자 표기, 바른 표현, 단어의 뜻 등등.

그러므로 이상적으로 사전 편찬자는 언어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또한 사전을 만들다 보면 편찬 과정에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된다. 이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을 만들 때는 보통의 책보다 배 이상 교정을 더 본다.

사전이 출판되었다고 사전 편찬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전혀 없을 수 없다. 실수만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된 말을 찾아 수정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 때문에 사전은 출판하자마자 곧 수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말이 있다.

사전 편찬에는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사전도 하나의 제품이므로 그것을 사는 소비자가 많아야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국어 사전 편찬의 현실은 어둡다.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출판계에 따르면 요사이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사전을 사는 사람이 더욱 줄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조 남 호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21세기 지식인 사전

에이즈 박사
데이비드 호(Dr David D. Ho)

데이비드 호 박사(50 · Dr David D. Ho)는 에이즈 치료와 연구에 있어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에이즈 바이러스(HIV) 퇴치를 위한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중국계 미국인인 호 박사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그는 80년대 초 로스앤젤레스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최초의 에이즈 감염자가 발표되자 본격적인 연구에 뛰어들고 이어 미국 최초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80년대 후반까지 에이즈 연구에 몰두하던 호 박사는 91년 설립된 아론다이아몬드 에이즈 연구소의 소장으로 초청받는다.

그는 연구소에서 에이즈 연구를 계속해 HIV의 초기 감염자들의 에이즈 유발을 억제하는 이른바 '칵테일 요법'을 개발한다. 이 요법은 여러 가지 에이즈 치료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감염자의 혈중 HIV수치를 검출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또한 이 요법으로 에이즈에 걸린 농구스타 매직 존슨의 혈청을 양성에서 음성으로 고쳐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인체에 침투한 HIV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데이비드 호 박사는 21세기 가장 무서운 병 '에이즈' 완전정복의 희망로를 밝혀주었다.

개성을 담아 소비자 욕구 충족시킨다

환상동물사전, 작품사전 등 다양 … 문화 수준 재는 척도 되기도

주접[3](명): 번뜩이는 재치와 탁월한 유머 감각.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 중 하나다.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주접은 분명 '여러 가지 탓으로 생물체가 쇠하여지는 상태'이지만 2002년 신세대들은 주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도 없는 제3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사회 내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5년에서 1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는 국어사전이 쉽게 변동하는 유행어를 담아 낼 수는 없다. 때문에 엽기, 주접의 새로운 정의처럼 유행에 따라 형성된 신조어의 정의는 이제 인터넷 사전이 대체하고 있다. 엽기사전, 유행어사전 등 인터넷을 통해 신세대들이 자신들만의 정의를 새롭게 내린 사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단편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문학작가들의 작품사전, 디지털용어사전, 환상동물사전, 등 분야별로 세분화한 특수 목적 사전 제작이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 나라 문학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작품사전은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박경리 '토지' 사전이 최초였다. 작품사전은 등장인물과 작품에만 통용되는 의미에 대한 정의 등을 담아 작품의 바르고 빠른 이해를 돕고 있다.

이처럼 특수 목적 사전은 많은 정보를 담는 백과사전이나 국어(공용어)사전이 담당할 수 없는 매우 전문적이거나 빠르게 변하는 정의를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백과사전과 국어(공용어) 사전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 사전의 양과 질이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재는 척도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사전은 종류뿐만 아니라 모양도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사전은 들고 다니기에도 무거운 책이라고 생각했던 사전이 인식의 틀을 깨고 단 한 장의 CD로 탈바꿈되어 나타난 것이다. 디지털화로 세계적인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 단행본 550권 분량도 CD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전자사전, 인터넷 사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전이 속속 등장해 소비자 요구에 부흥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최인숙 교수의 철학이야기 (1)

불편함을 받아들이자

안정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들은 마음이 불안한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직장이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며, 사회가 혼란한 것을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을 갖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자녀들이 일류대에 가는 것을 마음 깊이 원하며, 그리고 그러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자식들이 일류대를 나와 안정적이며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파출부를 해서라도 고액 과외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다운 발전인가 등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단기적인 이익 및 즐거움보다는 장기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물질적 부를 창출하는 데에만 주력해서는 안되고,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적 기반을 탄탄히 쌓는 일에 자본 및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야만 경제적 부의 체제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데, 사람들은 구체적인 경우로 들어가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내세우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삶의 방향 내지 사회의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이란 무엇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있는 상황만이 현실인가?

인간에게 현실은 다른 동물 및 식물들의 현실과 달리, 기존에 주어져있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방향은 우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살다간 발자취에 의해 세상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의 정치나 경제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쉽사리 비판의 말을 한 마디씩 한다. 그러나 자기의 주위, 더 좁게는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로 오게 되면 우리들은 기꺼이 소인배가 되어버린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및 오늘날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의 적응의 우선성을 앞세우면서.

안정, 편안함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서 그러한 본성이 동시에 바람직하거나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의 인격, 권리를 많이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천연성을 많이 보존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에는 의지와 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발전을 위한 이러한 의지와 긴장의 삶에는 마음의 '편하지 못함'이 따른다.

개인의 인생 및 사회의 참다운 발전을 위해서 우리들은 마음의 '불편함'을 의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과 사회 및 역사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2002 봄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

2002학년도 봄 학기 사회봉사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 청 자 격 : 재학생
2. 신 청 기 간 : 2002. 3. 4(월) ~ 3. 8(금)
3. 봉사활동 기간 : 2002. 3. 18(월) ~ 2002. 5. 25(토)
4. 봉사활동 방법 : 활동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봉사활동 안내 자료 : 인터넷 게시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 동국참사람봉사단에 비치되어 있음.
5. 봉사활동 대상기관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외 100여개 기관 (활동내용 : 600여개 프로그램)
6. 봉사활동 신청 장소 : 동국참사람봉사단(본관 3층)
7. 사회봉사활동 학점 신청 및 성적처리 방법
가. 학점신청 :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참사람봉사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평가방법 : Pass 또는 Fail
다. 성적 평가
(1) 학점 인정 : 봄 학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 시(교과목: 사회봉사, 이수구분: 자유선택, 1학점 Pass)인정
(2) 학점인정시기 : ▶ 겨울학기 · 봄학기 활동자(1학기 성적에 반영)
▶ 여름학기 · 가을학기 활동자(2학기 성적에 반영)
(3) 전체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4) Fail의 경우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함.
8.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가. 일 시 : 2002. 3. 16(토)08: 20~17:00
나. 장 소 : ▶ 특 강 - 본교 중강당 08: 20까지 『시간 엄수』
(※현장체험학습은 예비교육 대상자 전원 학교 버스로 이동)
※참고사항 : 동국참사람봉사단 예비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봉사활동 不可.
(단, 예비교육은 봉사활동 실시 전에 받아야 하며, 재학기간 중 1회 이상만 이수하면 됨)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 국 참 사 람 봉 사 단

2002학년도 1학기 특별시험 안내

1. 시험과목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시 험 시 간
RGC006	교필	컴퓨터활용과실습1	1	09:00 ~ 09:50
RGC009	교필	실용영어1	1	10:00 ~ 10:50
RGC007	교필	영어회화1	1	11:00 ~

2. 응시자격 : 2002학년도 1학기 1학년 재학생
3. 전 형 료 : 과목당 40,000원
4. 최대신청학점 : 3과목(3학점) 까지
5. 원서접수기간 : 2002. 3. 4(월) ~ 3. 6(수)
6. 시험일시 : 2002. 3. 9(토), 09:00 ~
※ 응시과목별 시험시간에 입실완료하기 바람.
7.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실(본관 3층, ☎ 2260-3041)
8. 전형방법
가. 컴퓨터활용과실습1 :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한 후 이의 내용 평가(Word97, 한글, 윈도우즈98, 인터넷검색, Explorer, 홈페이지 제작법 등의 실습테스트)
나. 실용영어1 : Native Speaker가 녹음한 테이프로 시험실시후 평가
다. 영어회화1 : 외국인 교수와의 Interview 후 5가지 기준으로 평가 (발음, accent, intonation, 문장구조, 어휘의 풍부성)
9. 합격자 발표 : 2002. 3. 13(수), 09:00
10. 성적등급 표시 : 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A+, A0를 부여함
11. 유의사항
가.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으며, 정규학기의 수강 신청을 불허함.
나. 고사실은 원서접수시 안내함.

교 무 처

수강신청 확인 · 정정

2002학년도 제 1 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02. 3. 6(수) ~ 8(금), 3일간
※ 야간 전공 및 교양과목은 3월 6일 오후 6시이후에 수강신청 정정 시작
2. 장 소 : 교내컴퓨터실(시간표 책자의 실습실 안내 참조) 및 교외(인터넷)
3. 대 상 : 전교생
4.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원 교부 : 각대학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
5. 유의사항
가. 개인별로 배부되는 수강신청확인원에 본인의 수강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정원을 작성하여 PC 정정후 교학과에 제출할 것
※ 임의정정의의 경우 신규과목은 3과목까지만 입력 가능하며 삭제는 제한없음.
나.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라. 시간표의 변경사항(분반, 폐강 등)은 조정강의시간표를 참조하고, 최종 변경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의 강의시간표조회 또는 본인 수강신청 확인란을 참조하기 바람.
마. 분반으로 인하여 수강강좌가 변경된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음.
바.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원은 학생이 작성한 후 학업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도장)을 반드시 받아서 소속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함(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강 신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이 불가함)
※ 수강신청을 정정하지 않는 학생도 반드시 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함.

교 무 처

동국대학교 『직업탐구』 취업강좌 주제별 강의 계획(안)

〈2002학년도 1학기〉

※ 매주 금요일 오후 3~5시

주제	구 분	수 업 내 용	강 사 명	시간	진행방법
3/8	진로결정	미래를 보는 성공학	이 내 화 (성공전략연구소 소장)	2	강의
3/15		미래사회와 유망직종	이 종 구 (잡아카데미 소장)	2	강의
3/22		21세기 환경변화와 인재상	김 병 구 (삼성전자 인사부장)	2	강의
3/29		인 · 적성 직무능력 이해	김 기 봉 (인재개발연구원)	2	강의
4/19	취업탐색의 실천	채용동향 및 제도의 변화	황 두 언 (롯데그룹 인사차장)	2	강의
4/26		취업정보 수집 및 분석	류 제 홍 (아이유레카 대표)	2	강의
5/3		자격증의 세계와 취득 요령	김 록 환 (노동부 직업지도관)	2	강의
5/10		대기업 채용연구	김 현 도 (삼성전자 인사과장)	2	강의
5/17		외국계 기업 채용연구	이 영 숙 (한국 이도츠 인사부장)	2	강의
5/24		공무원 및 공기업 진출대책	이 미 숙 (육서당 대표이사)	2	강의
5/31	입사 실천대책	자기분석 및 서류작성법	남 경 현 (에리트코리아 전무이사)	2	강의
6/7		면접의 이해 및 대책	채 민 규 (LG정보통신 인사차장)	2	강의
6/14		보다 나은 내모습 만들기 (예절교육)	강 현 진 (프리랜서)	2	강의

멍 자국 남기지 않는 거대한 폭력

일상 속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감시, 이제는 경계해야 할 때

국가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군부독재 시절의 폭력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 폭력, 감시가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가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전산화되어 각종 공기업에 돌아다니고 있으며 일부는 관리 소홀로 인해 민간으로 흘러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사 기획부는 감시와 통제 그리고 그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나는 네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누군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두려움. 이는 비단 영화 속 주인공들만 겪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공포영화보다 더 실감나게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

위험한 사람이나 그의 행동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을 뜻하는 감시는 그 사전적 의미와 같이 사회의 안정을 명분으로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일제시대부터 독립군 색출을 위해 스파이가 동원되는가 하면 군부독재 시절 정통성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복경찰이나 도청, 감청 등이 이용되기도 했다. 이 시대 국민들이 입조심, 행동조심을 생활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스스로 이러한 감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자행되던 국가의 물리적 폭력이 사라지면서 보이지 않는 폭력인 감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물론 사회의 안정을 위해 감시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를 잡는 것은 물론이고 예방하는 기능까지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CTV는 속도위반차량을 줄이는 데 한 몫하고 있으며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시의 화살이 범법자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곳곳에 숨어 있는 CCTV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에 찍힌 지문은 전 국민을 모든 범죄의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이처럼 범죄예방이나 행정상의 편의를 빌미로 국가는 국민들의 사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비단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는 개인정보의 남발과 악용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에 의한 감시뿐 아니라 민간에서 일어나는 '훔쳐보기'는 이제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어 버렸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수많은 눈들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체는 노동자를 감시하는 CCTV를 작업장 곳곳에 설치하지만 사용주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스팸메일 지우기에 바쁘지만 자신의 메일 주소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사생활 노출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다. 사람들이 감시와 사생활 노출에 무뎌지면서 이제 훔쳐보기는 그저 '바라보기'가 되고 말았다.

바라보기는 조지오웰의 공상소설 '1984년'에는 하루종일 개인의 침실까지 감시하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자신의 일기장은 책상 깊숙이 숨겨 넣으면서도 정작 훔쳐보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렇게 훔쳐보기를 방관하고 있는 동안 소설 속 텔레스크린은 더 이상 조지 오웰의 상상물이 아닐지 모른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국가에 의한 감시

국민을 지켜보는 감시망이 확대된다

지문날인, 유전자 정보 은행, 도 · 감청 … 명분 앞세운 감시통제 더욱 강화돼

당신이 지문판독기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이름,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건강, 친구관계 같은 사생활까지 포함된 모든 정보가 공기관 또는 국가의 전산망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라.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는 국가안보와 질서, 행정의 효율을 앞세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전산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감시'라는 또 하나의 통제세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와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의 모든 정보를 압축해 놓은 것으로 이전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간 1억 7천만 통의 증명발급비용감축 등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이를 추진했다. 그러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전산오류로 인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통합으로 국가의 감시통제가 더욱 강화된다"며 강력히 반발해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현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날인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지문을 주민등록증에 디지털화할 경우 전자주민카드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몸에 전자주민카드를 새기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다음으로 지문날인은 경찰청이 전 국민을 범죄의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감시하는 것과 같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만약 지문감식기의 이용이 보편화된다면 지문감식기를 통해 주민등록정보는 물론 모든 개인정보 유출이 심해질 것이고 이는 국가에 의한 전자적인 감시통제의 강화를 뜻하는 것이다.

유전자정보은행

유전자정보은행은 국가차원에서 범죄수사와 미아찾기를 명분으로 설립을 시도하고 있는 의료사업이다. 한 개인의 유전자에는 현재의 건강상태와 미래의 질병, IQ, 성격, 비만도 등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정보가 들어 있다. 때문에 태아의 경우 부모가 태아의 성별이나 IQ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선별분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반강제적으로 유전자를 채취해 범죄인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가 하면 미아를 찾아 준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유전자채취 동의서를 구하는 법적과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한재각(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씨는 "국가는 유전자정보은행의 장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배후에 나타날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자체의 실효성과 절차적인 법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 · 감청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도 · 감청에 의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탐지는 사실상 불법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및 긴급처분규정'에 의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 역시 영장발부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긴급사안일 경우 영장 없이 먼저 감청한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48시간 이전에 감청을 끝냈거나 범죄사실이 없어 수사를 마칠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감청을 허용하는 범죄에 있어서도 일본이 4가지로 제약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48가지에 이르러 대부분의 범죄수사에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감청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고 감청을 당하는 사람조차 자신이 감청을 당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이 국민의 사생활 존중을 유념하고, 감청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차후에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감시는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 점점 그 비중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는 전산망이 발전하면서 더욱 급속화 되고 있으며 감시망 또한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무분별한 권력남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감시와 통제가 사회구조화 되어 만원을 인출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 국가감시 시대. 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국가를 역감시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국가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민간에 의한 감시

'사생활의 종말시대' 당신은 안전한가

작업장 감시, 인터넷 정보유출 등 … 정보기술 발달로 갈수록 극심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생활의 종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의 영역이 급속히 작아지고 있다. 인터넷 서핑이나 이메일 확인을 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감시받고 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노동자 감시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박모씨는 지난달 22일 어처구니없는 일을 경험해야 했다. 자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측이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박모 씨 등 3명의 업무용 컴퓨터의 본체를 본인들의 동의없이 떼어가 조사한 것이다.

사건 이후 박씨는 "컴퓨터 안에 저장된 사적인 이메일의 내용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디지털 위성방송 측은 "회사 PC를 조사하기 위해 일일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며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에서 인터넷 서핑과 이메일 전송행위가 회사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상황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몇몇 대기업에 보안프로그램을 공급한 한 업체의 관계자는 "메일의 첨부파일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각각의 사용자가 무엇을 입력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감시의 방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식당에 정맥인식기를 설치해 직원들이 근무지에서 벗어나 식당에 가는 것을 막거나 위성위치시스템을 통해 택시기사가 손님없이 쉬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감시기구가 첨단화되는 추세 속에서 작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일은 고전적인 수법으로 느껴질 정도다.

편리하지만 악용소지 많은 쿠키

쿠키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생성된 사용자 정보를 컴퓨터에 기록한 데이터 파일로 네티즌들의 편리한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청와대 사이트를 처음 방문해 ID와 비밀번호를 기록한 쿠키가 만들어지면 다음에 접속할 때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같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쿠키의 역할은 단순히 접속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쿠키파일과 연결된 인터넷 업체의 서버에는 사용자가 검색한 단어, 오래 머물렀던 사이트, 신용카드 번호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사이버 공간을 항해한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인터넷 업체들이 맞춤형 배너광고나 홍보성 이메일 발송에 쿠키를 이용하면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 유럽에서 쿠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관련 법규가 제정된 데 반해 현재 우리나라는 쿠키의 사용에 관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양호 정보정책팀장은 "쿠키의 수집과 이용수준, 이용자 동의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이용자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마케팅과 개인정보 유출

벤처거품이 사그라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업은 인터넷 업체들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업체가 문을 닫을 때 그동안 축적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될까.

미국의 경우 파산한 인터넷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에 판매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파산한 업체가 고객정보를 판매해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암암리에 고객정보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은 오프라인 상에서도 비일비재하다. 2년전 국내 굴지의 통신기업인 한국통신과 한솔엠닷컴이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가입자 50만명의 인적정보를 제휴카드사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당시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경쟁회사가 아닐 경우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그다지 낯선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위험수위를 넘어선 기업들의 '개인정보 사고팔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감시를 감시하라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감독 이마리오씨를 만나

"당신의 고유번호에 의심을 품어라"

지문채취, 정보전산화 한국사회 전형적 파시즘의 상징

태어나자마자 붙는 고유번호 13자리, 만 17세 청소년들의 통과의례인 열 손가락 지문채취, 어딜 가더라도 지니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플라스틱카드. 지난 68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없이 살아가기란 이름 없이 살아가기보다 더욱 힘든 일이 되었다.

그러나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주민등록제도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다.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씨(32세)를 만나 그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 주민등록증 제도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 이유는.

= 국가가 감시와 통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번호를 붙여 놓은 주민등록제도는 파시즘의 가장 전형적인 상징물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제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그 심각성에 비해 아직 공론화가 부족한 주민등록제도에 논쟁을 붙이기 위한 다큐멘터리다.

- 현재 주민등록제도에 어떠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 한국의 사회생활에서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다. 즉 나는 곧 번호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심지어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마저 할 수 없는 등 사회적인 취미생활까지 극도로 제한되어 주민등록이 강제성을 띄고 있다.

지문날인 또한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물건을 잡는 데나 쓰여야 할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더구나 열 손가락 모두 채취하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범죄자, 특히 간첩의 색출을 위해 쓰인다는 논리를 펼치는 데 이는 곧 국민 모두를 잠정적 범죄자로 본다는 뜻 아닌가.

또한 지문날인이 수사에 결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0.1%도 되지 않는다. 결국 이를 위해 전 국민 모두가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 당해야 하는 것이다.

- 그러나 신분증명은 필요한 것 아닌가.

= 세계적으로 신분증명은 국가차원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확인절차인 경우가 많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일이 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세계에서 신분증명만을 위한 카드가 있는 곳은 이곳뿐이다.

의료보험카드나 운전면허증이 신분증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이러한 카드를 처음부터 발급 받지 않더라도 다만 사회보장 등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뿐 사회생활에는 무리가 없다. 개인의 신분 증명증 발급이 한국에서는 피해 입지 않기 위한 강압이라면 외국에서는 혜택 받기 위한 선택인 것이다.

- 국민들의 정보수집에 대해 외국의 수준은 어떠한가.

= 홍채색까지 조사하는 등 국민에 대한 정보수집이 활발한 선진국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절대 전산화하지 않아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국가 각 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다. 자신도 미처 몰랐던 개인정보가 각 기관에서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전산화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것이 전자주민카드제도이다. 의료보험카드, 교통카드 등 각종 기능이 하나로 집약된 전자카드의 사용내역은 모두 전산화되기 때문에 한눈에 개인적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의 특성이 파악된다면 머릿속에 담긴 생각까지 어느 정도 추적 해낼 수 있다는 뜻 아닌가.

전자주민카드 뿐 아니라 주민등록제도를 놓고 보더라도 국가의 국민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국민의 인권 중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지 생각해 볼 일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이제 국민이 국가를 지켜봐야 한다

프라이버시권 추구를 넘어 '역감시 운동'으로

초기에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로 표현되던 프라이버시권은 1970년대 이후 '자기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엄격한 의미로 통용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자본의 감시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전면에 등장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지난 30년동안(국내적으로는 약 7년간)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게 지적되어 왔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권이 추구하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흐름'에 대한 통제는 현대사회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단 체득된 개인정보는 무한복제가 가능하게 되고 특히, 유통과정에 발생하는 개인정보 생성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를 가하지 못한다.

확산되는 감시와 통제

현실적으로도,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한 감시와 통제의 양상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를 뒤따라가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지난 시기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논란에 이어, 전자지문의 채취로, 급기야 검찰과 경찰에서는 유전자 정보의 채취가 이야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문이나 홍채, 손등의 정맥을 감식하는 생체인식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여 민간부문에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전자건강카드제도의 도입시도까지 고려한다면 전자감시체계의 도입은 다양한 논리와 방식으로 우리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적극적 권리 찾기, 역감시

이처럼 단순히 방어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없고,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요구하는 프라이버시권 개념으로 이런 추세를 역전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지문날인거부, 주민등록제 반대와 같이 국가감시체제에 대한 대응은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개인적인 권리개념을 넘어서 사회적·집합적인 권리로서 다시 무장해야 한다. 역감시의 권리란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역감시의 권리란 소위 '역감시 운동'이라고 일컬어진 현대사회의 핵심제도에 반작용활동을 하는 새로운 흐름을 지칭한 것에서 유래한다. 역감시 운동은 주요 문제를 둘러싸고 숨어 있는 조직망이 일시적으로 가시화되어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감시를 상쇄하는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역감시 운동은 운동주체 또는 권리향유의 주체에 대한 불명확함 때문에 이해집단간의 로비 정도로 치부되면서 그 운동의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국민이 국가에 대한 통제주체로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구체적인 경로와 대상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권리로서 역감시의 권리는 권리 향유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지문을 포함하여 감시와 통제체제를 통한 구체적인 침해의 사례들을 보면, 불특정다수에 대한 감시를 전제로 하면서도 노동자와 민중(운동진영)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행사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때문에 국가에 대한 통제의 주체로서 그리고 역감시의 권리주체로서 노동자 민중이 사고될 때에만 권리와 인권은 공문구가 아니라 그 보편성과 현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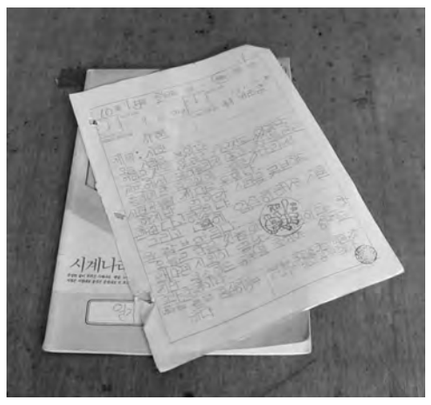
이는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국가통제를 행사해야 할 주체는 바로 침해의 당사자임을 거꾸로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일례로 노동조합에서 가능한 대응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신기술협약을 도입할 수 있다. 뉴질랜드 공공연맹이 체결한 협약은 어떤 기술적 추적도 허용하지 않는다. 컴퓨터 시스템은 개인 노동자의 근태, 위치, 활동, 수행을 모니터 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작업 그룹이나 단위의 수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적인 수단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민중통제권으로서 역감시의 권리가 강화될 때만이 그나마 국가와 자본의 감시통제에 맞서는 운동이 현실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또한, 그 권리 향유의 주체도 막연한 시민, 개인이 아니라 다양한 민중통제권 확보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홍석만
사회진보연대 편집실장

일상 속 감시를 찾아서

별 다섯 개 짜리 일기



잠시 초등학교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 시절 일기장을 펼쳐보자. 친구와 싸웠던 일, 좋아하는 이성친구 이야기 등 어린 시절 말 못했던 고민과 비밀이 그 안에 고스란히 적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 너무도 부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참 잘 썼어요'라는 말과 별 다섯 개. 일기를 보고 써 준 선생님의 평가에 우쭐댔을지 모르지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기를 검사 받고 평가받으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을 감시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선생님이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고, 내 생각을 검사하고 평가한다?' 그렇다. 일기를 통해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을 타인에게 공개한 셈이 되며, 그렇게 노출된 사생활이 우리를 판단케 하는 하나의 자료로 쓰여지도록 한 셈인 것이다.

교복을 벗어라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교복일 것이다. 이렇듯 교복은 중·고교생이었다면 누구나 입어야 할 하나의 '통과의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왜 중·고교생들은 의무적으로 교복을 입어야만 할까. 우리는 이에 대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위해서라든지, 평상복을 입게 되면 빈부차에 따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든지 등 여러 이유를 들어왔지만 간과하고 있던 또 다른 부분이 있다.

교복이 감시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일 수 있다는 것. 청소년이기에 통제 당해야 하는 모든 일이 교복이라는 상징물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즉,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에게는 언제든지 감시하는 시선이 있고, 어디든지 '레드 존'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엇을 하든지 금기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꼭꼭 숨어도 핸드폰이 찾는다

'멀티넷 세상. 모바일 천국'

이 말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신의 핸드폰을 켜라. 게임, 채팅, 쇼핑은 물론 각종 정보와 운세까지 알 수 있는 핸드폰 속 인터넷. 이러한 핸드폰의 기능과 서비스는 더 빠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요구에 부응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 것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핸드폰 서비스도 예외는 아니다.

버스나 택시회사에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치추적 서비스가 바로 그 예. 얼마든지 감시를 통한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한 포털사이트에는 친구가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감시하는 세상, 사생활침해 천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제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한번쯤 의심해 보는 것은 어떨까.

너무나 '영리한' 학생증

무엇이든지 하나로 OK!

다양한 응용과 다량의 정보 기록이 가능한 스마트 카드의 한 종류인 학생증. 이것 하나만 있으면 지하철, 은행, 도서관 이용은 물론이고 교내식당, 매점, 구내서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편리하고 유용한 스마트 카드 이면에는 '감시'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학생 개개인의 활동공간, 지출내용은 물론 도서대출현황을 통한 성격파악까지 모두 학생 카드 하나면 충분하다. 심지어 한 대학교의 학생증은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출석체크까지 할 수 있다니 이제는 출석상황까지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순히 다기능 카드라고만 생각했던 학생증. 알고 봤더니 정말 영리한 '스마트'카드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소나기

다시 새내기가 된다면…

△술과 이별하고 공부를 한번 제대로…
△올 A+ 도전!!
△생각하기도 싫다
△멋진 C.C가 돼봐야징~
△정말 열심히 미팅하고 남자 실컷사귀겠다. 공부보다 중요한게 사랑이란걸 늦은 나이에 깨달았다. 사랑 만세!!
△1년에 책 300권 읽을꺼야!
△군대 또 가야되나? 죽음이다!
△확실한 친구 한 명 사귈꺼다!
△좀 더 세상에 당당해지리라 그리하여 넓게 세상을 보리라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지 여행도 많이 다니고 ^^
△또 다시 놀겠지 뭐~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좀 더 귀기울였으리라
△대출 안 시키고 땡땡이 안치고 도서관 다녀야지
△멋진 동국인이 되자!
△4년 평점 4.5, 수석으로 졸업해야지.
△다리 운동을 할꺼닷! 언덕 오르는데 숨 안차게.
△도를 아십니까? 도를 배워야지.
△절대로 껌 안할꺼야 ㅠ.ㅠ
△열심히 공부하겠다!
△인정사정 없이 소개팅, 미팅을 우하하~
△잘해봐야지. 학교생활 · 동아리생활
△아침밥은 굶고 점심밥은 과 선배한테 저녁밥은 동아리 선배한테 이렇게 1년을~
△싫다 싫다~ 다시 군대두 가야되니
△휴학!재수!
△장학금 한번 타보자.
△학교는 넓고 여자도 많다(?)
△난 새내기가 싫어. 무조건 돈내기쥐.
△로스트 메모리즈~ 옛날일 기억하기 싫다.
△사랑에 빠져 살아나 보지 모…
△이미지 관리에 신경 좀 쓴다.
△알이 먼저? 닭이 먼저? 사랑이 먼저? 우정이 먼저!!!
△지금 이짓꺼리는 하지 않는다.^^
△옆에 여자10명은 끼구 다닐걸~ 푸하하!!
△술, 담배, 당구와 세이 굿빠이~
△미국 시민권 따겠다. 승준이 처럼…
△4년 내내 공부만 해야지.
△과 행사 참여 많이 할꺼닷!
△좋은 선배 만나 술 한 잔
△미팅 많이 해야지.
△입학 선물 + 돈 더 많이 받아낸다.
△학생회장에 출마한다.
△선배에게 아이스크림 매일 얻어 먹는다.
△맘 잘 맞는 친구 3명 꼭 사귀고 말껴야.
△돈을 아껴쓴다. 아껴야 잘 살지.
△교필 학점 관리 철저!
△절대로 쓸데없는 짓 안 한다.
△해외 봉사활동을 가고 싶다.
△교수님과 친해지고 싶다.
△지금 만나는 친구 절대로 안 만난다.

선배라고 느낄 수 있었던 값진 경험

2002년도 수능이 끝난지도 3개월이 다 되어가고, 바야흐로 이제는 신입생들을 맞이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내가 속해 있는 수화 동아리에서는 이번 02학번들과 같이 새터를 가게 되었다. 대학이란 곳에 처음 들어오는 새내기들을 위해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다. 아침부터 공연 연습에, 리허설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어느덧 오후가 되었다. 우리가 대기하고 있던 공연장에 새내기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다들 신기한 눈으로 '쟤들이 02학번이구나… 바로 우리 후배구나…' 하는 생각에 새내기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공연이 시작되고 무대에 올라섰을 때는 조금 떨렸지만 연습한 대로 잘 해냈다.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두 궁금해 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미련은 없었다. 다만 기대와는 달리 신입생들의 호응이 별로 없었다는 게 참 아쉬웠다.

어쨌든 마지막은 언제나 약간의 미련과 후련함을 동반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즐거웠고 이제 입학할 새내기들을 조금은 더 먼저 만난 느낌이었다. 5박 6일이라는 조금 긴 듯한 일정이었지만 전혀 지루한 일정은 아니었다. 비록 새내기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어도 공연을 통해 새내기들을 만났고, 선배가 된다는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다.

홍태선 (공과대2)

장애인 차별없는 동악, 이제부터 시작이다 !

거의 일주일의 새터를 나는 장새준위(장애학우와 함께 하는 새터만들기 준비위원회)의 장애인인권행동위원회 소속으로 참가해 새터를 준비하고 진행했다.

새터를 마치고 지금에 와서 지난 일정을 돌이켜보면 새내기들을 맞아 장애문제를 알리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드는데 준비가 많이 미흡했음을 느낀다.

이번 새터 역시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그리고 장애인인권행동위가 함께했던 장새준위 준비과정이나 새터 진행과정에서 장애문제에 관한 고민이나 장애학우의 참여 고려가 아직은 많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극소수의 장애학우 만이 참여한 새터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느끼는 새터이기도 했다.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 및 자치기구들이 장애문제를 고민하려하는 의지를 확인했고 새터기간중에 이루어졌던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내기들을 보면서 장애를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는 동악을 만드는 일이 가깝고도 즐거운 일임을 깨달았다

이번 새터는 그야말로 '첫 시도'이자 '시작'일 뿐이다. 이 다음해에 이어질 새터든 새터가 끝난 이후든 장애학우는 우리 곁에 있을 것이며 그에 관한 고민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성진 (사과대2)

뚜렷한 목표의식 가지고 생활해야

이번 방학동안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했다.

사실 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란 것은 그리 멋있지도, 탐탁치 만도 않았다. 난 그 곳에서 사회생활의 쓴맛을 일부 맛본 것이다.

내가 일한 곳은 전통찻집이었는데 거기서 난 개량 한복을 입고 각종 전통차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비록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었지만 누군가를 위해 친절을 베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게 마냥 신나기만 했다. 하지만 곧 그곳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일정한 장소에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야하고 예의 없는 손님도 상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번 돈을 쉽게 써버렸기 때문이다.

분명히 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헛된 기대를 가지고 물질적인 것만 좇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터이다. 그런 면에서 방학동안 아무 계획도 없이 단순히 즐기려고만 내 모습에 반성이 든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었으며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어학원을 다니거나 토익공부를 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든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방학이었다.

은민주 (인문대 일문3)

노력한 만큼 결실맺는 올림픽으로 거듭나길

화려했지만 그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이 폐막식까지 치러졌다.

올림픽 경기기간 내내 우리나라 대표팀이 쇼트트랙에서 억울한 판정을 받았던 순간 순간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텃세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자국에서 치러지는 경기라고는 하지만 강대국의 횡포에 놀아나는 약소국의 분노가 올림픽의 화려함 속에 묻혀진 듯 보였다.

그러한 불공평한 편파 판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신성해야할 올림픽에서도 경쟁논리인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용된다는 점에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캐나다 등의 항의는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우리나라의 항의는 쉽사리 기각하는 걸 보는 순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 씁쓸해졌다.

방학이라 특별한 할 일없이 무기력하게 지내는 나, 그리고 소위 지식인이라 일컬어지는 대학생들이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의 위치에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가득해야 할 올림픽이 이번 솔트레이크의 경우와 같이 억울함의 눈물로 얼룩진 올림픽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짧지만 그 한 순간의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4년 동안 흘리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값진 열매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또 그 뒤에서 우리 국민들이 열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홍유현 (예술대 문창2)

허브와 함께 심은 희망이 행복으로 피어나길 바라며

나는 오늘 꽃씨를 하나 심었다. 추웠던 겨울이 다 끝나가는 지금, 또 대학생활의 절반이 시작되는 지금, 난 '허브'라는 꽃씨를 하나 심었다. 그것도 아주 작은 화분에다 아주 작은 참새의 눈망울 만한 돌들을 깔고 적어도 30년 이상은 된 전나무 밑의 흙을 절반 가량 담았다. 물을 충분히 붓고 그 위에 다시 마른 흙을 깔았다. 잠시 후 마른 흙이 축축하게 젖어올 때쯤, '허브'라는 꽃씨를 꺼내 화분에 조심스럽게 뉘이고 흙을 덮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물을 찍어 한 두어 방울 떨궜다. 마지막으로 '허브'씨와 함께 내 희망을 불어넣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에 한숨짓는 이 때에, 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하나 심었다. 희망으로 기대를, 사랑으로 행복을, 노력으로 미래를 기다리며…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마음의 종이 한 장 차이다. 끝은 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때이며, 마지막에 도달했다면 처음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또 낡았다고 생각하면 낡은 것이지만 그것이 변화한다 생각하면 늘 새로운 것이 된다.

어쨌든 난 꽃씨 하나를 심었다. 지금은 많은 기대감으로 행복한 순간이다. 언제나처럼 출발은 그런 것이다. 아마 올해 입학을 하는 새내기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늘 그들 앞에 행복함이 가득하길 빈다. 더불어 비록 좁긴 하지만 내 자취방에도 허브 향으로 가득할 그 날을 생각하며 미소짓는다.

이군행 (법정대 법3)

안녕하세요.

잉으키기 운동으로 건강하게 다시 잉어난 소정이입니다. 이제 새내기등이 꿈을 키우는 새학기가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역기로 학교가 아주 활기차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힌등었던 2000년 겨울 이후로 많이 좋아져 지금은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원한 이후로 꾸준히 치료받고 좋아져 지금은 학교에 나가서 사람등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학교에 나가 풍물패의 한판굿을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제가 건강해진 것이 아직 실감나지 않네요. 오래 내 자리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 온 것처럼 아팠던 지난 시간등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혹 제게 부담이 될까 싶어 몰래 진행된 모금활동 이야기을 어느날 새벽 병실에서 어머님께 들었을 땐 감사스럽고 멀기지 않는 이야기등에 며칠밤을 생각 속에서 보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내 곁을 떠나지 않던 친구등이 도대체 언제 그럴 시간이 있었는지… 나을 앞지못하는 사람등까지 기꺼이 자신의 헌혈증을 기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내가 생각했던 세상라는 다른 모습에 그저 감동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바라본 선,후배, 동기등의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는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굳이 위로하지 않아도 친구등의 그 모습에서 앞으로 건강해질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맞은 스물 두 번째 생일에 찾아와 준 내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등, 매일 같이 찾아와 학교이야기며 사람등 이야기을 해주던 친구등, 그리고 부모님까지 챙겨준 여러분등을 생각하면 지금도 뭐라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 지…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좋아진다고 좋아하지말고 나빠진다고 슬퍼하지 말라"며 병원까지 직접 찾아와 말씀 해주신 허봉수 교수님. 자칫 조바심라 두려움으로 스스로을 힘들게 할 수 있었던 병원생활 동안 제 자신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배, 동기, 그리고 후배님등. 여러분등의 고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또 한 명의 아픈 사람이려니 하며 지나칠 수도 있었던 제게 가슴 두근거리도록 커다란 응원을 보내주셔서 뭐라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꼭 담아 두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라 함께 제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한 젊음이 넘치는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뵙겠습니다.

이소정 (야간강좌 경제3, 야총 풍물패 마당)

동대신문사는 여러분의 톡톡 튀는 참신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대신문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학내외 주요 사건에 대한 주장, 시나 수필, 책, 영화를 보고 난 후의 감상문 등을 200자 원고지 4매 분량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서울 ☎ : 2260-3491 · 2 FAX : 2270-1270
경주 ☎ : (054) 770- 2058 FAX : (054) 2260-2057
문의 · 제보 : dgupress@dongguk.edu

동악광장

-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

목멱골

축하합니다

△영냄(2일)과 손상(오늘)의 생일을 추카추카!!! -snail11
△재우형, 득녀 축하드려요. -이판사판 일동
△사회과학대학 새내기 여러분! 입학축하해요. -사과장
△하나 경영학과 96김형건, 96김성훈 오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턱!쏴! -99 김지연, 김선영
△국어교육과 바퀴벌레 한쌍 오채림&박강우 3월 3일 300일 축하!

수고하셨습니다

△불패 야총 새터 주체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경영대학 5개과 새터 준비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장
△단풍연 새터 준비 수고했고 다시 달려요~ -짱
△아라녀리! 새터공연 연습 수고하셨습니다. -용
△승욱, 영수, 세리오빠, 주희언니 시험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자!
△형사법학회 이번에 시험보는 96학번 녀석들 수고했다. -9기 기장

열심히 합시다

△회계학과 신입 총무부원들 입부 및 입학 축하드리고 열심히 합시다. -01김상열
△호진, 공부하자!! 화종 열심히 해라. 경훈 인간 되자. 경주 정신 좀 차려라! -경
△영식이 파이팅!! CPA 꼭 합격하리라 믿는다. -기욱
△王, 지혜, 원배오빠, 남욱오빠, 영민양 우리한번 붙어야져? 조금만 힘내서 다 같이 웃으면서 졸업여행 갑시다.

온방골

축하합니다

△양우형, 복학 축하드려요. 이번 학기4.5 가능하죠? 막판 스퍼트를 기대합니다.^^ -사랑스런 후배
△혜련아, 동대 입학한거 축하한다. 너가 원하는 대학생활 되도록 해라. -잠시 스친 인연
△영아, 입학 축하한다. 대학생활 멋지게 보내길… -나
△사령나는 형들 동기들 모두 추카~ ^^;
△02학번 신입생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털~원재랑, 우리 신랑, 그리고 안마담, 준호오빠! 시험치느라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실장 양희
△화선아. 석장에서 지루한 나날을 잘 버텼다. 이번학기는 꼭 장학금 타서 쏴라! -너만의 남자
△윤희양~학과일 And 학복위일 열쒀미 -無
△수위아저씨 수고하십니다.
△학생회 집부님들 새터준비하느라 정말정말 수고하셨네요~

열심히 합시다

△뿌리를 찾아서~불휘 여러분의 공연이 보구 잡네여. 기대할께여. -불휘 팬
△정대근! 앞만 보구 달려라. 쉴새없이 달려야 한다. -엉아가!

그리고…

△진우짱! 제발 살아서 돌아오세요 -방짝
△경주물가 왜케 비싸지? 밥먹구 살기 힘들다. -새내기

	서울캠		경주캠
	동 국 관	상 록 원	학생회관
월 (3/4)	참치우거지탕 불고기 너비아니백반	햄섞어찌개 닭갈비 만두전골	동태매운탕 불고기덮밥 새우까스
화 (3/5)	갈비탕 치킨볶음밥 카레라이스	설렁탕 순살돈까스 두부김치	김치두부국 닭갈비볶음밥 육개장
수 (3/6)	바지락수제비 제육김치덮밥 청포묵비빔밥	냉이국백반 비빔만두 꽁치레몬구이	된장국 돈육덮밥 비후까스
목 (3/7)	육개장 짜장밥 비엔나볶음백반	장터국밥 해물볶음밥 열무비빔밥	순두부찌개 카레라이스 스페니쉬폭찹
금 (3/8)	순두부찌개 오징어까스 닭도리탕	감자수제비국 돈깐풍 초밥우동	오징어무국 햄야채볶음밥 갈비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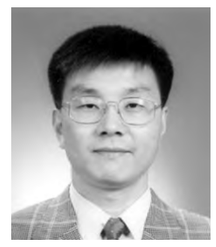
2002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프로필

우 제 선
불교대학 불교학과 전임강사
- 본교 불교학과 졸
- Pennsylvania대 아시아학과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강사 ·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양 홍 석
문과대학 사학과 전임강사
- 본교 사학과 졸
- 본교 사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사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 경기대 강사

김 상 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 본교 국어국문학과 졸
- 본교 국어국문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국어국문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 선문대 강사



노 헌 균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임강사
-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졸
- 고려대 영어영문학 석사학위 취득
- New York 주립대(Buffalo) English 박사학위 취득
- 전 경기대 강사

이 경 철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일어일문학과 졸
- 본교 일어일문학 석사학위 취득
- 廣島대 교육학연구과 박사학위 취득
- 전 육군사관학교 아주어과 전임강사

김 정 석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사회학과 졸
- South Calolina대 사회학 석사학위 취득
- Michigan대 사회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김 갑 순
경영대학 회계학과 전임강사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경영학과 졸
- 서울대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서울대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전 한라대학교 경상학부 전임강사

김 대 영
생명자원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전임강사
- 강원대 임산가공학과 졸
- 강원대 목재공학 석사학위 취득
- 東京대 농학생명과학연구과 박사학위 취득
- 전 동경대학 농학생명과학연구과 연구원

조 종 흡
예술대학 영화영상학과 전임강사
- 한국외국어대 영어학과 졸
- Michigan대 Telecommunication 석사학위 취득
- Wisconsin-Madison대 Communication Arts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영화영상학과 BK21 연구교수

강 현 숙
인문과학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전임강사
- 이화여대 사학과 졸
- 서울대 고고미술사학 석사학위 취득
- 서울대 고고미술사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충남대 BK21 백제학교육연구단 전임연구원

설 진 화
인문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졸
- 대구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취득
- 대구대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대구미래대학 전임강사

오 승 현
자연과학대학 컴퓨터학과 전임강사
- 본교 전자계산학과 졸
- 본교 컴퓨터공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컴퓨터공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주)세이프텍 연구소장

이 종 임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과 졸
- 본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본교 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서울삼성병원 전임의

안 승 원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과 졸
- 본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본교 경주병원 마취과 임시직 전문의

박 은 지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계명대 의학과 졸
- 계명대 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마취과 전임의

김 원 덕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영남대 의학과 졸
- 전 영남의료원 전임의

서 영 진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경북대 의학과 졸
- 경북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경북대병원 비뇨기과 전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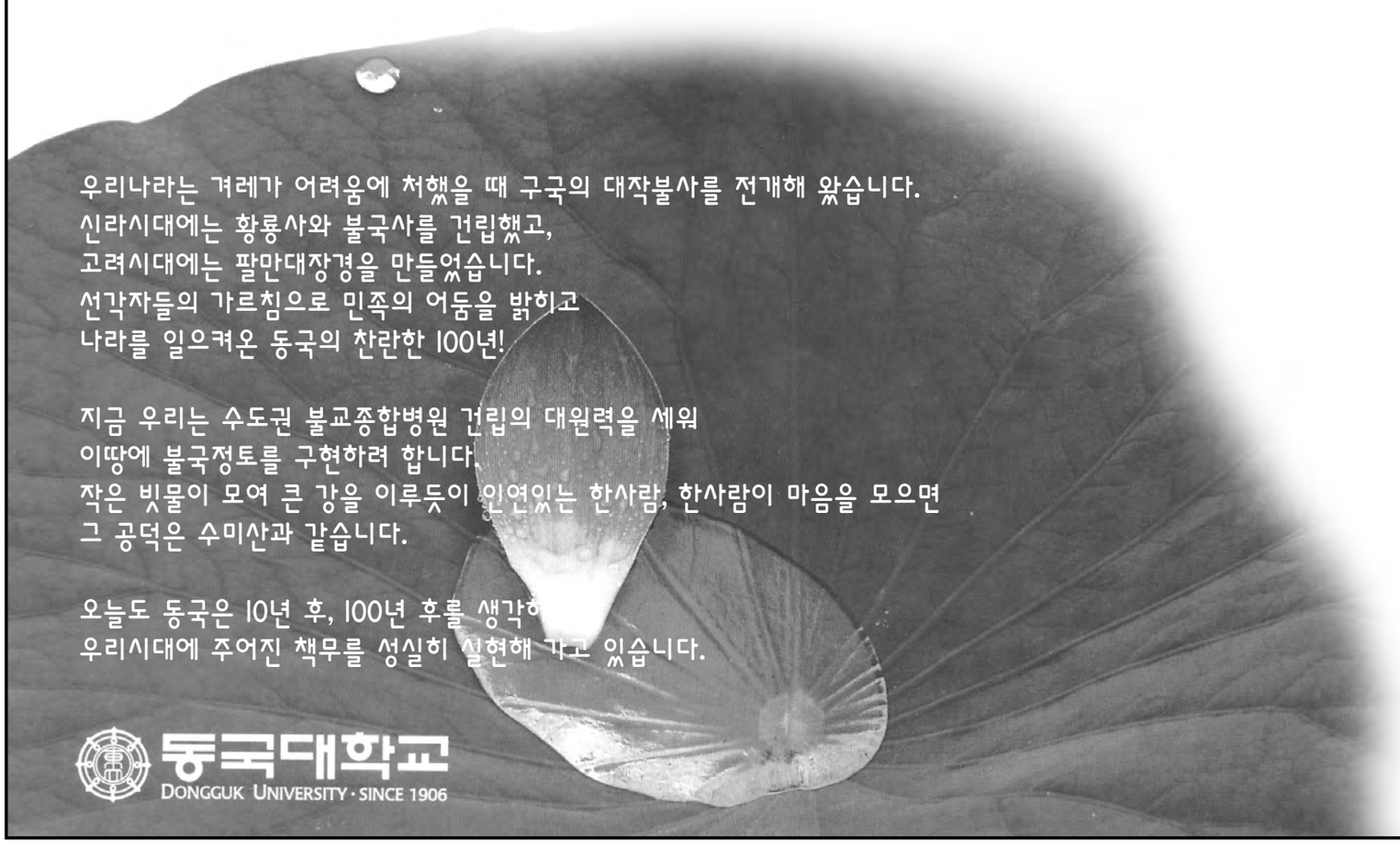
김 순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과 졸
- 계명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전 본교 경주병원 방사선과 임시직 전문의

구 관 민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본교 의학과 졸
- 전 예천 권병원 공중보건의

정 유 미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 의학과 졸
- 경희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
- 경희대 의학 박사학위 취득
- 전 본교 강남한방병원 진단 방사선과 전임의

발전기금 ARS 7000-119

작은 빗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룹니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부속
불교종합병원
2002년 겨울 개원!

병원건립기금수시접수
동참문의 (02)2260-3300
ARS전화 (02)7000-119
직접방문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독립영화, 관객을 만나다

'음란'은 '공공의 적'이 아니다

한 미술교사가 임신한 아내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진 속 남녀의 모습은 성적인 매력 대신 재왕절개한 자국과 빼짝 마른 몸매가 생활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속에서 배어 나오는 자연스럽고 편한 느낌은 인공적이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몸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김인규 교사는 그동안 상업적이고 왜곡되었던 우리 몸의 미학을 바르게 인식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예술적 의도는 철저히 무시당한 채 오로지 인터넷이라는 '공공'의 매체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을 유포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어긴 범죄자로 낙인찍혀야만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아트선재센터에서는 바로 음란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시선들을 바로잡고자 '제32회 독립영화, 관객을 만나다'가 개최되었다. 우리가 흔히 음란하다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음란한 것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세 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돼 '무언가를 감추고 도덕적인 체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음란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15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그 중 신한솔 감독의 '염소가족'은 염소와 승려의 사랑이라는 금기를 유쾌한 웃음으로 잘 표현했으며, 봉만대 감독의 '아름다운 파도와 바다'는 높은 완성도로 저예산 에로티시즘 영화의 미래를 예감케 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또한 영화뿐 아니라 음지에서 떠돌던 음란을 양지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라는 주제의 토론회와 퍼포먼스를 준비해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 밖에도 '진짜 음란한 이야기 찾기'와 '음란 말 풍선 만들기'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은 결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원승원 팀장은 "손가락 사이로만 훔쳐보던 성을 이젠 당당히 공론화 해야 할 것"이라며 "성을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아래 감추려고만 하는 국가검열이야말로 진짜 음란"이라고 강조했다.

'소위 말해' 음란한 영화를 본 관객들의 표정은 예상외로 밝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성은 더 이상 어두운 골방에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행사장 입구에 크게 써 붙여진 '감춰진 성을 감춰진 곳에서 봄으로 성을 더욱 음란하게 만드는 세상에 공개된 성을 말하다'라는 글귀는 의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식탁에 불어든 신선한 녹색바람

언론이 몰고 온 채식열풍 … 영양균형 잡힌 식생활 문화 정착해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톨스토이, 마이클잭슨, 피타고라스, 간디, 킴 베신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모두 '채식주의자'라는 점이다.

올해 초 SBS가 육식의 문제점을 파헤친 '잘먹고 잘사는 법'이란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후 채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육류업체들이 반발하자 언론은 다시 뉴스를 통해 육류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다큐멘터리에서 전한 메시지를 번복했다. 그렇다면 우리체질에 맞는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는 어떤 것일까.

그동안 채식은 절 음식으로 인식되어 특별취급을 받았고 여성들에게만 다이어트식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또한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화 되면서 '동양식'이라고 인식된 채식은 기름진 음식에 밀려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잘먹고 잘사는 법'을 통해 채식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채식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이며 미국의 철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육식을 하지 않으면 생태계적 르네상스를 불러올 것"이라 주장했다.

국내 채식인의 45% 정도는 건강을 위해 채식을 시작한다. 채식을 하면 육식으로 인해 증가하는 질병인 대장암, 변비 등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방지와 다이어트에도 그 효과가 탁월하다.

한편 환경을 생각해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년 우리나라 넓이의 숲이 식용가축을 기르는 방목지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애호가들은 육류를 '동물시체'라 칭하고 육류를 먹는 사람을 야만인 취급하며 채식을 주장하기도 한다.

건강 위한다면 100% 채식은 삼가할 것

그러나 채식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채식만 할 경우 동물성 단백질 부족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또한 채소에 들어 있는 철분이 육류 속의 철분에 비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빈혈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채식을 할 때에는 영양균형이 맞는 식단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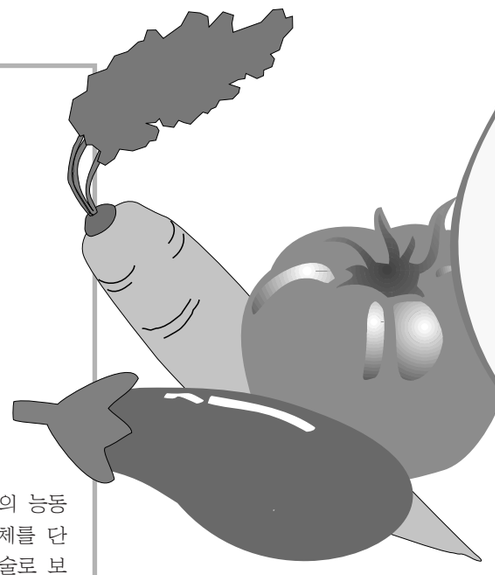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노완섭(식품공학) 교수는 "채식과 육식의 비율이 7:3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100% 채식은 한국인의 체질상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의 경우 채식을 권장하기 위해 콩으로 만든 고기의 상품화를 추진했고 지금은 콩고기가 하나의 요리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 채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여대 앞에 많은 채식전문점이 들어섰고 채식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자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회원수가 7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채식동호회연합(cafe.daum.net/veget)'으로 채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끼리 채식뷔페를 방문하는 등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 부는 채식열풍은 매스컴이라면 무조건 맹신하고 너도 나도 따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채식의 장점이 널리 알려졌고, 채식이 우리의 식생활 문화에서 그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영양의 균형을 잘 맞춘 채식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채식에 편중된 식습관을 기르기보다는 우리 체질에 가장 적합한 고유의 식생활 문화를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l



클릭! 두고보자 (www.dugoboza.net)

"만화사랑이 숨쉬는 진지한 담론의 장"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면 때때로 문화 각 분야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자료를 겸비한 보물창고를 발견할 수 있다. 만화창작비평 웹진 '두고보자(www.dugoboza.net)'역시 그런 곳들 중 하나이다.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부터 심상치 않은 이 웹진은 '만화를 바라보는 00한 시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지난 2000년 8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독특한 시선으로 우리나라 출판만화계를 조망해왔다.

또한 두고보자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만화 사이트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만화의 독립성과 창작여건 등 국내 만화계에 산재한 현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펼쳐나간다. 만화동호회와 동인문화, 공모전, 만화대여점 문제, 한국 인디만화의 현재적 의의 등이 지금껏 두고보자가 탐색해 온 담론의 큰 줄기들이다.

그런가 하면 △자유논쟁 △작가론&작품론 △릴레이 단평 등의 코너를 통해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만화'라는 매체를 단지 소비하기 위한 하위장르가 아닌 예술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만화 VS 망가'에서는 비슷한 소재를 취급하는 우리만화와 일본만화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기도 하고, '두고보자 갤러리'에서는 만화작가 양여진 씨의 단편 '새벽 1시 30분 쥴리아…'를 PDF 파일형식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아직 담론형성과정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거대 상업자본이 주도하는 획일화에 반기를 든 이들의 시도는 우리 만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만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담론에 참여하고 흐름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이제 '두고보자'를 두고보자.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문화단신

가까운 나라 일본전

국립민속박물관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가까운 나라 일본전'을 개최한다.

할머니의 집, 탄생에서 무덤까지, 현대 일본문화 읽기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현재 일본의 의식주부터 일생에 걸친 의례까지 다양한 일본의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2002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맞아 일본 문화를 보다 가깝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립극장 10% 캠페인

국립극장이 문화소외층을 위해 객석 10%를 무료로 제공한다. 국립극장은 이번 달부터 무대에 오르는 모든 공연에 대해 해오름극장 150석, 달오름극장 40석을 복지단체나 소년소녀가장, 노인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측에 무료개방 한다.

이 캠페인은 앞으로 일부 대규모 공연장에서도 함께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돼 문화소외층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대책 마련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퓨전연극 열풍

전통과 현실을 아우른 우리 공연예술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먼저 극단 자유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공연하는 '꽃, 물, 그리고…'가 그 첫 번째 주인공. 이 연극은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을 한지로 꾸며 연기와 씻김굿을 접목해 독특한 형식의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리어왕'에 '바리데기 설화'를 도입한 '우루왕'이 여러 나라에서 초청을 받아 오는 15일부터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해외공연에 나선다.

매체비평

연극편

프레스토 마르고 닳도록

"50년 정치근대사 조망하는, 부조리에 대한 풍자와 해학"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스페인의 마피아.

최근에 재미있게 본 연극 중 하나가 '프레스토 마르고 닳도록(이강백 작, 이상우 연출)'이다. 원래 작년에 공연했던 작품인데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 '우수 레퍼토리'로 재공연한 것이다. 앞에 '프레스토'가 붙은 것은 연출자 이상우가 원작을 조금 손대서 더 빠르고 활력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마르고 닳도록'은 짐작하다시피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 우리나라 애국가의 한 소절에서 제목을 따왔다. 그런데 작가의 발상이 엉뚱하다. 1960년대의 어느날 스페인 마피아 조직이, 안익태 선생의 스페인 가족명의를 빙자해서 꼬레아라는 나라로부터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받아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정권으로부터 노태우 정권, 김영삼의 문민정부를 거쳐 오늘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한국의 모든 정권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한다. 그러나 계속 실패한다. 3, 5공화국 때는 군사독재자의 안하무인격 배포 때문에, 노태우 정권 때는 책임을 미루는 우유부단한 관료들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때는 마피아들이 성수대교에 빠져죽고 삼풍백화점에 깔려죽었기 때문이다.

이 연극은 어찌보면 요즘 유행하는 조폭을 등장시켜 다소 황당한 줄거리를 엮어내는 그저 그런 코메디처럼 보인다. 실제로 극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꽁지머리에 멋진 검은 양복과 흰 머플러들을 두르고 뮤지컬식 춤도 곁들이는 스페인 조폭들이다. 이들이 엉뚱한 아이디어로 돈을 얻어내기 위해 삼십년간 한국의 정부들을 찾아오다가 계속 거절당하고 봉변당하면서 늙어가는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폭소를 터뜨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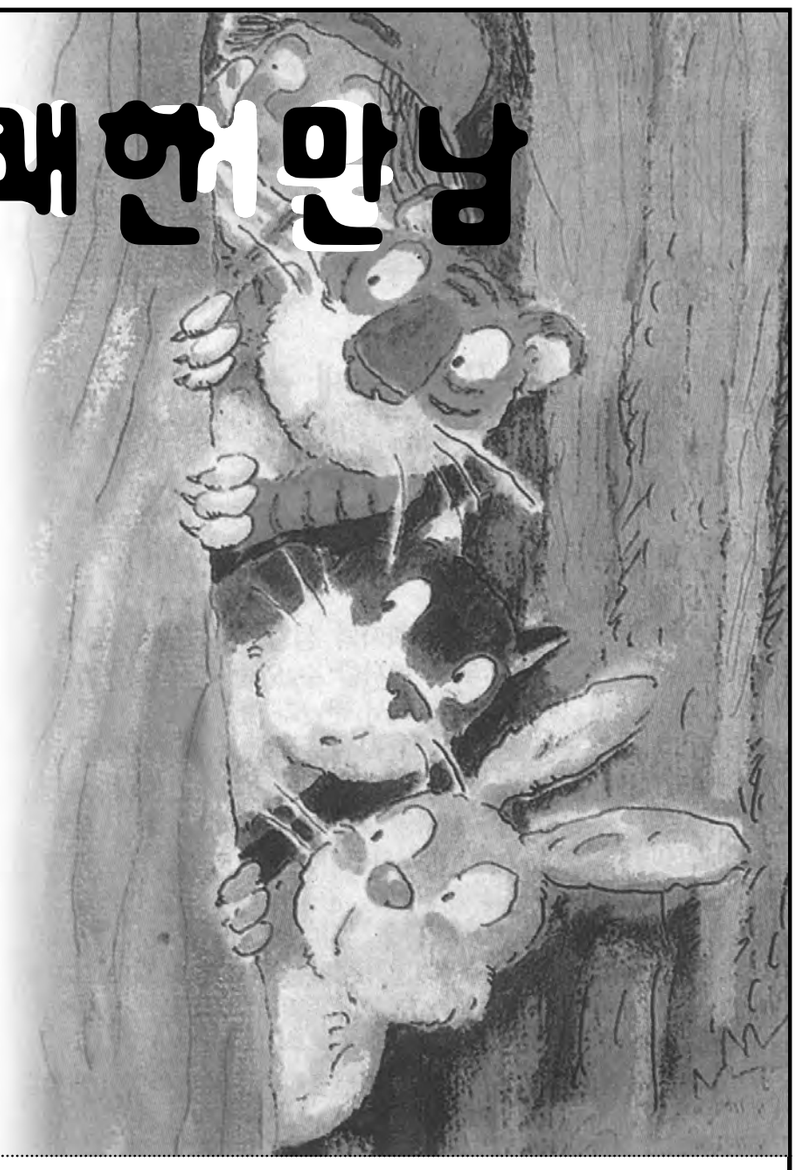
그러나 이 작품이 정작 흥미로운 것은 이 웃음이 실은 우리의 과거 50년의 정치근대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의 의도는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마피아들의 실패담을 웃음거리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들 마피아보다 더 제멋대로이고 더 엉망이었던 한국의 역대정권을, 정체성도 일관성도 없는 한국 근대사를 꼬집고 있는 것이다.

마피아들은 그래도 사십년간 저작권료를 받아내겠다는 일관된 목표로 일사분란한 조직력과 동지애를 발휘하며 '마르고 닳도록' 한국을 찾아왔다. 비록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음모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에서 동료를 잃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꼭 저작권료를 받아내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비친 꼬레아 정부의 모습은 어떤가? 비논리적 배짱과 정체성이 결핍된 불연속성의 정권, 즉흥적 약속, 그리고 속을 알 수 없는 공무원들 뿐이다. 스페인 마피아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자기들보다 혼돈스럽고 더 부조리한 집단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작년에 이 작품의 초연무대를 보면서 우리 문화계도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었다. 엄숙하기만 했던 국립극단이 창단 50주년 기념무대로 만든 무대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시 재공연을 보러갔더니 마침 문화관광부 장관이 옆좌석에서 재미있게 웃으면서 보고 있었다.

김 방 옥
예술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동화, 현실과 상상력의 유쾌한 만남



'옛날 옛날에 아기돼지 삼형제랑 늑대 한 마리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첫 문장만 보고도 많은 사람들은 이 동화가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악랄하기로 소문난 아기돼지 삼형제와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늑대에 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 볏단, 나무, 벽돌로 만든 돼지 삼형제의 집도 사실은 꼬임에 넘어간 순진한 늑대가 밤새워 지은 것이라면?

지난해 개봉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은 기존의 동화를 거세게 한번 비틀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예측불허의 웃음을 짓게 한다. 이것은 '신데렐라'라고 하면 어김없이 유리구두를 떨어뜨려야 하고,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면 무조건 백조로 거듭나야 할 것 같은 틀에 짜인 동화를 통쾌하게 비웃으며, 그동안 우리의 머릿속이 얼마나 그러한 동화에 지배되어 왔는가를 보여준다.

흔히들 동화를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불어 교훈을 일깨우는 어린이를 위한 문학작품쯤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 고전동화나 우리의 전래동화는 아동기라는 개념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동화는 당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그림형제가 수집해 나름대로 재구성한 것이며, 18세기에 발표된 '로빈슨 크루소'나 '걸리버 여행기'는 아예 어른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출판 과정에서, 그리고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되면서 또 재단되고 덧붙여져 현재 우리가 알고있는 또 다른 형태의 동화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에는 당시 시대상황이나 문화, 사상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해석에 의하면 '헨젤과 그레텔'에서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것은 실제로 중세유럽 때 자행됐던 일이며, 원작 '백설공주'에서의 일곱 난장이란 전제정치와 착취로부터 민중을 해방시키려는 반란군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왜곡된 성논리와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아직까지도 동화 속에 고스란히 남아 전해져 내린다. 이러한 동화를 통해 아이들은 맑고 순수한 영혼을 꿈꾸기보다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와 같은 허황된 삶을 꿈꿔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었다.

또 동화 속 여성들이 삶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반해 '15소년 표류기'나 '허클베리핀의 모험' '피터팬'에 등장하는 남자들은 모두 모험을 즐기는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인 표현된다.

거의 모든 동화가 '옛날 옛적에'라는 수식어로 시작한다. 하지만 동화를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로, 과거 이야기로 접어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심코 흘려버린 동화가 한 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불고 있는 '동화 비틀어보기'는 더욱 의미 있다. 이제 동화를 톨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한번쯤 다시 생각해 뒤집고 비틀어보는 남과는 다른 '튀는' 생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동화, 그대로의 동화 뒤집어 보기

걸리버와 떠나는 17세기 영국기행

흔히 주인공 걸리버가 소인국과 대인국을 여행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걸리버여행기'의 원작은 본래 4부로 이루어져 있다.

원작자 조나단 스위프트가 작품을 발표한 1726년에는 현실에 대한 고뇌를 담은 성인소설이었던 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로 각색되면서, 3부 '하늘을 나는 섬의 나라'와 4부 '말의 나라'가 빠진 것이다.

작가가 세밀하게 묘사해 놓은 환상의 세계는 어린 독자들이 열광하기에 충분하도록 흥미진진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정치와 사회, 인간 본성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1부와 2부에서는 나라 안은 치열한 당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식민지 전쟁을 벌이는 당시 영국사회와 정치에 대한 비판이 소인국과 대인국의 상황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동물에서는 누락된, 본격적으로 인간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는 3부에서 걸리버는 떠도는 섬에 사는 학자들의 비합리성과 죽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깨닫는다. 이는 런던왕립학회 과학자들과 탐욕스럽게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것이다.

가장 뛰어난 편으로 평가받는 4부는 이성적인 말 '휴이넘'에게 사육되는 야만스러운 인간 '야후'를 통해 인간본성의 추악한 면들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휴이넘들의 나라를 이상국가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걸리버여행기는 재미있는 모험담인 동시에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찬 인간과 사회의 모순에 대한 통쾌한 고발이기도 하다.

이는 널리 알려진 동화가 풍자와 상징을 통해 당시 시대상과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일 수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크리스마스에 드러난 사회의 어둠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거리에는 흥겨운 캐롤이 울려퍼지고, 곳곳에서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인사의 말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제분위기를 즐긴다. 하지만 이런 크리스마스에 소외된 이들의 기분은 어떨까.

'닥터 수스'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테오도르 수스 가이젤이 1957년 출간한 동화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을까(이하 그린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후'들이 살고 있는 후 마을. 후들이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는 가운데, 후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다가 도망쳐 크럼피트 산 꼭대기 동굴 속에 살고 있는 그린치는 이들의 크리스마스를 훔칠 계획을 세운다.

이는 그저 심성이 고약한 괴물의 심술 정도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그린치가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한다면 동화가 1950년 냉전시대에 태연하게 자행되던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임을 알 수 있다. 닥터 수스는 편견으로 뒤틀린 당대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동화 속 상징을 가지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린치는 '선물과 파티는 크리스마스의 정수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상업주의를 배척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고전의 반열에 든 닥터 수스의 이 동화는 아이들에게 사회의 어두움과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화는 더 이상 꿈과 환상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이제 동화의 환상 뒤편에 주목할 때다.

스머프 마을은 사회주의 유토피아?

노랗고 빨간 지붕을 가진 조그만 버섯마을과 파란 피부에 하얀 모자를 쓴 귀여운 스머프들을 기억하는지. 국내에서 1983년 방영되기 시작한 TV애니메이션 '개구쟁이 스머프(이하 스머프)'의 주인공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58년 '페요'라 불리는 벨기에 만화작가 피에르 컬리포드의 작품 속 주변 캐릭터로 등장하면서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랑스런 캐릭터와 참신한 줄거리로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현재도 30여개국에서 방영중이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이 은유와 동화 형식을 빌어 정치적인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마크 슈미트는 스머프를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우화"라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스머프 마을은 사회주의자들이 꿈꾼 공동 생활체의 완벽한 전형이며, 붉은 옷을 입은 파파스머프는 칼 마르크스를 상징한다.

스머프들은 제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두 평등하고, 사유재산의 개념은 없으며 모든 소유물은 공공의 것이다.

그리고 항상 이들을 쫓아다니는 마법사 가가멜은 자본주의를 나타낸다. 그가 항상 스머프를 잡아먹거나 황금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냉전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멸망을 획책한 것과 모든 사물의 상품화 등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가가멜의 고양이 아즈라엘은 냉혹한 자유주의시장의 힘없는 노동자를 대변한다.

결론적으로 스머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이뤄지기 힘든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이상적 형태이다. 동화는 한 시대를 풍미한 사상을 드러내는 도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메아리

겨울연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준상이가 아닙니다. 나한테도, 유진이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자신이 준상임을 알아차린 민형에게 상혁은 유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충고한다.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매번 아슬아슬하게 엇갈리는 민형과 유진의 사랑은 보는 이들의 애를 태우며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얼마전 막을 내린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이 '김동성 실격 파문'에 이어 '김운용 성명서 파문'으로 다시금 입방아에 올랐다. 내용인즉, 올림픽 폐막식 불참의사를 밝힌 선수단에게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겸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 폐막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국내의 여론과는 배치되는 발언을 한 일이 문제시된 것.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은 미국이 개최국의 중립성을 무시한 채 개막식에 9·11 테러의 상징인 찢어진 성조기를 들고 나올 때부터 이미 올림픽의 기본 정신이 훼손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또한 올림픽 내내 심판들의 오판과 미국 언론들의 국수주의를 조장하는 편파성 보도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퇴색되었다고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올림픽 이후 최고조에 달한 전 세계적인 반미 여론만 보더라도 솔트레이크 올림픽이 '성공적'이었는지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긴 올림픽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 '겨울연가'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민형이 여주인공 유진의 첫사랑 준상과 동일인물로 밝혀지면서 드라마의 극적 재미를 더해가고 있다.

반대로 같은 '기억상실증'이지만 보는 이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성명서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했던지 귀국하자마자 돌변해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으로 '뒷북을 친' 김운용 위원이 바로 그 사람이다. 정작 필요할 때는 등을 돌리던 '그'가 이제는 말을 바꿔 금메달을 꼭 되찾겠단다.

김 위원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IOC위원들한테도, 국민들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손상민 편집장
neo9292@dongguk.edu

취업 · 자격증 정보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서울지방노동청은 최근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현장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전공 등과 관련한 다양한 경력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재학생 · 졸업자(1972.1.1~1984.12.31 출생자) 중 미취업 상태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수 참가자는 연수참여 기간 중 매월 30만원씩을 지급 받으며,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연수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수 신청은 서울중부고용안정센터(전화:2254-4493) 또는 본교 취업지원팀에서 받는다.

재난복구 전문가 자격증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재난복구분야 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정보공학(대표=유용석, http://www.kies.co.kr)은 재난복구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DRI인터내셔널과 함께 공인인증 자격제도를 국내에 선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공학은 우선 DRI의 사업영속성 및 재난복구에 관한 자격증제도 중 하나인 CBCP(Certified Business Continuity Professional) 자격시험을 이번달 실시할 예정이다. BCP 공인자격 시험의 응시조건은 2년 이상의 재난복구 관련분야 실무자로 75점 이상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며, 자격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다.

시험은 재난복구 계획수립 및 훈련대책, 사업영향력 평가, 위험분석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치뤄질 예정이다.

ACE자격증 한글시험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 이흥렬)는 그래픽 분야 국제공인자격증인 ACE(Adobe Certified Expert) 한글시험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ACE는 어도비 제품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래픽 디자이너나 웹 디자이너 등의 분야로 진출할 때 유리하다. 한글시험이 가능한 과목은 포토숍 6.0과 애크로뱃 5.0이다.

ACE는 필기만으로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시험 형태로 치른다.

시험은 60~90 문항의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며 과목당 시험 응시료는 150달러다.

자료제공 : 서울지방노동청 중부고용안정센터

동아리 탐방 - 서울캠 경당 치우

젊음의 패기로 '우리 것' 지킨다

조선시대 전통 무예 연마 … 옛 선조 기상 이어나가

매일 아침 만해광장을 젊음의 패기와 함성으로 채우는 학생들이 있다. 학생회관 4층에 위치한 정통무예 동아리 '경당 치우' 부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얼마전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열정적인 무예 시범을 보였던 동아리 경당 치우는 일제시대때 상실되었던 조선시대 전통무예를 지켜나가기 위해 창시된 24반 무예 '경당'과 검의 창시자로서 천하에 기상을 떨쳤던 '치우천황'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사진/김진성 기자

경당 치우 부원들이 새터 중앙공연에서 무예 시범을 보이고 있다.

경당 치우 부원들은 임진왜란 이후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24가지의 무예 중 말을 타고 수련할 수 있는 6가지를 제외한 18가지 무예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마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수련하고 있는 무예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 조선시대의 생활상과 역사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하나의 무예를 연마하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어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경당 치우의 한 부원은 여러 가지 무예를 연마하여 신체의 건강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 경당 치우의 최대 매력이라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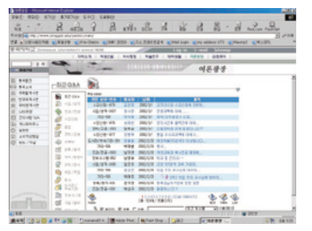
황토색 수련복을 입고 매일 아침 수련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딱딱하고 재미없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왕건'과 같은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병기를 직접 다뤄본다는 것도 경당 치우만의 자랑 중 하나라고 말하는 부원들.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당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크게 퍼져 나갔던 경당이 대학에서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에요.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라고 말하는 심상오(독일3) 당주의 바람은 한국전통 무예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것이다.

만해광장에서 동악의 아침을 깨우는 경당 치우의 수련 모습이 학생들에게 '무관심' 보다는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는 '자랑스러움'으로 비춰져, 경당이 예전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Q & A



수강정정 (서울캠)

- 수강 정정 과목 제한이 무엇입니까?

= 정정 기간에는 수강 신청 기간과 달리 신규과목을 3과목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강 정정 과목 제한인데 임의정정의 경우 입력은 3과목만 가능하며 삭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학과에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학생 수강신청 (경주캠)

- 복학생들은 재학생들이 수강신청을 다 한 상태여서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복학생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 현재 선 수강신청시 정원의 20~30% 정도를 정정 기간에 복학생과 편입생을 위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복학생의 비율보다 많으며, 수강 정정기간은 휴학생들의 여석까지 남게되어 실질적으로 25~35%의 여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Q&A방에서)

35mm 세상

많은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버스를 타고 싶고
함께 어울려 공부하고 싶고 이곳 저곳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휠체어를
끌고 나가려해도
그 앞은 언제나
장애물로 막혀 있습니다.

오늘따라 휠체어를 끄는
이들의 뒷모습이
더욱 힘겨워 보입니다.

- 지난달 26일 장애인 교육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엄태규 사진부장 snail11@dongguk.edu

생활체육

5분으로 건강지키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다는 말로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건강을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도무지 시간이 없다는 현대인들을 위한 5분 건강운동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계단을 이용한 다리 허리 강화방법이다. 하루에 5분 정도 4주 이상 꾸준히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면 체력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걷거나 달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추기립근, 대퇴사두근, 대전근이 강화되어 요통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목욕하면서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이다. 근육을 스트레치한다는 것은 근육을 쭉 펴는 것이다.

스트레칭은 체온이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 목 스트레칭이다. 두 손을 턱에 대고 아래에서 크게 위로 올리고 그 한계나 그에 가까울 때 정지한다. 정지하는 시간은 처음에는 5~10초 정도로 하고 조금씩 늘려 가다가 30초 정도까지 한다.

다음에는 목 좌우의 근육이다. 오른손을 머리위로 들고 오른손 바닥을 좌측 두부에 대고 오른쪽 아래를 향해 머리를 당긴다.

다음에 손을 바꾸어 실시한다. 어깨 스트레칭도 실시하자.

우선 오른손을 머리위로 높이 들어 올린다. 왼손은 들어올리고 오른손으로 왼손 손목을 잡고 오른쪽 아래로 쭉 당긴다. 5~30초 정도 정지한다. 다음에는 손을 바꾸어 실시한다.

허리 스트레칭을 할 경우는 욕조 난간에 앉아서 두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구부린 채 조용히 깊숙이 상체를 숙여 두 다리 사이로 머리를 넣고 5~30초간 정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에어로빅스 운동이다. 에어로빅스는 지구성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

에어로빅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전신운동으로서는 서키트 트레이닝을 들 수 있다.

서키트 트레이닝은 6가지 종류에서 2가지 종류 되는 운동종목을 조합하여 그 코스를 만들고 그 코스를 쉬지 않고 몇 번이고 순환(circuit)해 나가는 방법이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서키트 트레이닝의 예로서는 ①팔굽혀펴기 10번, ②윗몸 일으키기 10번, ③스쿼트(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20번, ④레그레이즈(누워 다리 모아 들어올리기)10번, ⑤버피(차렷자세에서 엎드린 자세 후 다시 일어나기 순으로 하는 운동) 6번등 이다.

이상 다섯 가지 운동을 가능한 쉬지 않고 순환한다.

종목별 횟수는 자신의 최고횟수를 측정하여 그 회수의 40~50%를 자신의 운동 횟수로 정한다. 운동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횟수를 늘려 3회 순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체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생활 가운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 보자.

정 길 상
인문과학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독 자 광 고

뭉게구름이 2002년 신입생들을 모집합니다.

1학기 신입생 오디션
일 시 : 3월 19일(화) 오후 6시
장 소 : 학생회관 5층 뭉게구름 동아리방
모집분야 : 작곡, MIDI, Vocal, E.Guitar, Bass Keyboard, Drum, A.Guitar, 기타 악기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 · 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순수한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대학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려한 개인기를 마음껏 펼치고 싶습니다.

머국언론의 순트트랙 왜곡보도를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는 너무 좁습니다.

모집인원 : 서울 · 경주캠퍼스 ○○명
응시자격 : 1학년 남 · 여 재학생(휴학생 제외)
모집분야 : 취재 · 사진기자
제출서류 : ①지원서 1부(본사에서 배부중)
②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장 분량)
원서마감 : 3월 20일(수) 오후 5시
선발방법 : 필기시험과 면접
선발일시 : 3월 21일(목) 오후 6시
장 소 :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동대신문 기자가 되십시오.